

# 靈光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 卷3의 刊年 問題\*

A Bibliographic Study of *The Lotus Sutra* at the  
Bulgapsa in Youngkwang

宋 日 基 (Song, Il-Gie)\*\*

## ◁ 목 차 ▷

- |                              |                                |
|------------------------------|--------------------------------|
| 1. 緒 論                       | 4.1 腹藏遺物の 收拾經緯                 |
| 2. 靈光 佛甲寺의 沿革 및 冥府殿<br>造成    | 4.2 法華經 卷3의 주요특징               |
| 2.1 佛甲寺 沿革                   | 5.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br>卷3의 刊年問題 |
| 2.2 冥府殿 造成                   | 5.1 卷首題 형식                     |
| 3. 「妙法蓮華經」의 漢譯 및 編成          | 5.2 卷·張次의 특징                   |
| 3.1 法華經의 譯本                  | 5.3 避諱 문제                      |
| 3.2 鳩摩羅什 譯本の 編成              | 5.4 字體 검토                      |
| 4.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br>卷3의 現狀 | 6. 結 論<br><참고문헌>               |

## < 초 록 >

이 논문은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사 명부전 시왕상에서 발견된 『묘법연화경』 권3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 자료인 법화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판본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권수제 형식과 판본서체 등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돈황사본과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이 자료는 10세기 전반의 인쇄본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본에서 인쇄본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초기 인쇄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要語: 법화경, 구마라집, 불갑사, 시왕상, 돈황사본, 권수제, 사경체자, 초기인쇄물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11년 5월 25일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8일

<ABSTRACT>

This is the bibliographic study of the third volume of *The Lotus Sutra*(妙法蓮華經) found in the statues of Ten Kings, the Hall of Judgement, Bulgapsa in Youngkwang, Jeollanamd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tus Sutra*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have so far been found in other editions in Korea. An analysis of such features as the styles of ‘卷首題’(the first title) and calligraphy rather shows its similarities to the manuscripts of Dunhuang(敦煌). So, it is concluded that this particular *Lotus Sutra* was the print made in the early 10th century, and had the value as one of the early prints produced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when manuscripts were largely converted into prints.

Key words: *Lotus Sutra*, Kumarajina, Bulgapsa, the statues of Ten Kings, the manuscripts of Dunhuang(敦煌), the first title, the early print book

## 1. 緒 論

우리나라는 일찍이 世界印刷史에 있어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귀중한 印刷物을 생산해냈던 국가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羅代에 목판으로 인쇄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고려 말 1377년에 활자로 인쇄된 『佛祖直指心體要節』로서, 이들은 각각 현존 世界最古의 木板 및 活字 印刷物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의 국보문화재이다.

그런데 현존 최고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경』에는 아쉽게도 이를 확증시켜 줄 간행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그간 국제학계에서는 이 책의 ‘發行國家’와 ‘刊行年代’를 두고 여전히 그 是非가 끈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존 최고의 인쇄물과 그 다음으로 간행된 인쇄실물과의 시차가 대략 250년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더 나아가 8세기 중반이전에 한국에서의 인쇄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쇄실물자료의 출현을 鶴首苦待하고 있던 차에,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귀중한 실물자료가 전라도 영광의 모악산 불갑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현존 최고의 목판인쇄물은 다라니경으로 ‘納塔供養’을 목적으로 제작된 儀禮用 小冊子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인쇄시대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발견된 이 인쇄실물은 그 형태적 특징이 10세기 후반에 간행된 宋板大藏經이나 11세기 전반부터 간행된 初雕大藏經의 실물과 별차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閱覽用 또는 讀經用 서책으로 보기에 그다지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발견된 인쇄물이 간행되었던 시점을 전후로 본격적인 인쇄본시대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새로 나온 인쇄물이 과연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가치를 지닌 자료인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실물자료의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먼저 모악산

불갑사의 창건 및 중창의 연혁을 살펴보고, 이어 이 실물이 출현한 명부전 및 시왕상의 조성시기를 살펴 보고자하며, 또한 새로 발견된 인쇄물인 범화경의 漢譯本 및 編成體制를 살펴, 이 실물자료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경전인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 발견된 인쇄실물의 형태적 특징은 현존본과는 어떠한 특이점을 보이고 있는지의 여부를 卷首題, 卷張次 表示, 避諱, 字體와 紙質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비교 고찰한 결과, 과연 이 인쇄물이 어느 시기에 간행되었는지의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 2. 靈光 佛甲寺의 沿革 및 冥府殿 造成

### 2.1 佛甲寺 沿革

#### 2.1.1 初創

불갑사의 연혁에 대해서 기술된 문헌자료로는 ① 1359년에 李達衷에 의해서 찬문된 <覺眞國師碑>를 비롯해서, ② 1608년 무렵에 睡隱 姜沆이 쓴 <佛甲寺重修勸施文>, ③ 1675년에 범당을 중수한 후 남긴 <正門漆造重創上樑記文>, ④ 1725년에 李孝宇가 쓴 <母岳山佛甲寺記>, ⑤ 1741년에 萬歲樓를 중수한 후 石村거사가 남긴 <靈光郡佛甲寺萬歲樓重修上樑文>, ⑥ 1741년에 李萬錫이 쓴 <佛甲寺古蹟記>, ⑦ 1802년에 다시 만세루를 중수한 후 崔秀俊이 쓴 <靈光郡佛甲寺萬歲樓重修上樑文>, ⑧ 1878년 무렵에 쓰여진 <佛甲寺萬歲樓重修記> 등이 전하고 있다. 이 자료 중에 ①, ④, ⑥은 현재 불갑사에 傳存되고 있는 <靈光佛甲寺古蹟>에 謄載되어 있으며, 또한 이 <佛甲寺古蹟>에 등재된 자료와 ②의 睡隱 <重修勸施文> 등은 모두 1911년에 간행된 『朝鮮寺刹史料』에 수록되어 불갑사의 연혁을 살펴는데 널리 도움이 되고 있다. 그밖에 최근에 사찰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된 傳統寺刹叢書(제7책)와 동국대 박물관에서 편찬한 『靈光 母岳山 佛甲寺』

에 불갑사 사적 전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상의 불갑사 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그 연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갑사는 백제 중기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sup>1)</sup> 이후 통일신라 때인 8세기 후반에 중창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불갑사의 노스님이 조선 중기에 절을 중수하면서 법당의 대들보에서 ‘貞元元年改造’라는 6字의 글자가 발견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sup>2)</sup> 貞元은 중국 당나라 德宗의 年號로서 그 원년은 신라 元聖王 1년(785)에 해당한다. 이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신라 원성왕 원년 이전에 이미 불갑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 2.1.2 重創

이후 고려후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覺眞國사 復丘에 의해서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있었다. 이는 백제시대에 초창된 이래 통일신라인 원성왕대의 중창을 거쳐 3중창에 해당되는 것이다. 3중창에 관한 기록은 <覺眞國師碑文>에 짙막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姜沆이 지은 <勸施文>에 보이고 있다. 이 기록에 불갑사가 자리하고 있는 지형을 두고 이른바 ‘洞天福地’라 하면서, 그곳에

1) 현재 불갑사의 初創 년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見解로 나타나 있다. 첫째 견해는, 고려 중기의 문헌인 『三國史記』(권24) 및 『三國遺事』(권3)에 기록된 “백제 枕流王元(384)년에 東晉으로부터 백제에 온 인도스님 마라난타”에 의해서 그 무렵에 창건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두 문헌에는 그 翌(385)년에 최초의 佛寺를 한산주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둘째 견해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東國輿地志』(권5)에 “신라 때 창건되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신라하대에 초창되었다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후대의 기록이긴 하나, 조선중기에 姜沆이 쓴 <佛甲寺重修勸施文>에 법당 중수시에 발견된 상량문에 “貞元元年改造”라는 6자의 墨書銘이 보이고 있는 바, ‘貞元元年’은 바로 신라 元聖王 1(785)년에 해당되며, 이때 이미 불갑사의 중창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불갑사의 초창은 그 보다 앞선 백제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한다. 그러나 이 목서명 역시 구전으로 전승된 사실이며, 강항이 직접 보고 쓴 기록은 아닌 듯하다. 따라서 불갑사의 연혁에 대한 문제는 관련 자료를 진위의 식별없이 그대로 참고할 것이 아니라, 文獻學的 측면에서 그 문헌 내용의 傳承層位 문제를 고증 인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姜沆, <佛甲寺重修勸施文>, 『朝鮮寺刹史料』(京城: 朝鮮總督府, 1911), 218. “其重創則老僧 因法堂改椽時 得見其上樑則有大書六字曰 貞元元年改造.”

큰 절이 들어서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당시 그 절의 규모는 500여 칸에 이르는 매우 큰 절로, 僧房 70여 칸에 院廊이 400칸으로 둘러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樓閣의 기둥 높이가 90척에 달하며, 法堂은 일백 석으로 백여 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웅장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sup>3)</sup> 그런데 정작 강항의 勸施文에는 이와 같이 웅장한 절의 규모가 각진 국사의 중창불사 결과로 조성된 것인지의 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다.<sup>4)</sup> 그러나 강항의 기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각진 국사의 중창불사 결과, 불갑사의 규모가 이처럼 웅장하여 한때는 수백 명의 스님이 이곳에 머물렀으며, 寺田은 10리 밖까지 있었다고 한다. 각진 국사는 이곳 불갑사에 머물다가 당시 공민왕의 명으로 王師에 임명되어 조계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임난 이전의 불갑사에 관한 사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다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이후로 가람을 중창하면서 이에 관한 몇 가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오랜 戰亂의 탓으로 시주가 어렵게 되자 法稜스님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곳곳에 화주를 구하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에 호소하면서 어렵게 재물을 구해 나갔다. 사람들은 스님의 노력에 탄복하면서 이 절은 내가 어려서 학문을 익힌 곳이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3) 上揭書. “有巨刹五百餘間 僧房七十餘 院廊環四百餘 柱樓高九十尺 法堂百坐百餘人.”

4) 그런데 姜沆의 <勸施文>보다 대략 130여년 이후에 작성된 李萬錫의 『佛甲寺古蹟記』에는 각진국사의 3創 후에 조성된 규모로 밝히고 있다(若言其三創之後則巨刹五百餘間 僧房七十餘所 廊寮百餘 柱樓高九十尺 法堂可坐數百人). 그렇다면 강항은 覺眞國師碑文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의 규모를 정확하게 밝힌 것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기록하였을 것인가. 먼저 강항이 찬문시에 범룡스님이 전한 口傳되었던 사실 또는 다른 고기록 자료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 강항은 정유난 무렵에 31세가 되니, 그는 병란으로 불타 없어지기 전에 그가 살았던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불갑사의 규모를 수차 살펴보고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겼을 여지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이만석은 그가 직접 밝힌 바와 같이, 강항의 권시문을 참작하여 부연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리하여 이만석의 기록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불갑사에 수장되어 있는 필사본을 상호 참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시대에 편찬된 『朝鮮寺刹史料』에 전재하는 과정에서 誤字 및 脫字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에서 인용한 내용 중에도 ‘巨刹立百餘間’으로 되어 있어, 단지 이 사찰사료를 근거로 쓴 논저는 대부분 ‘100칸’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장차 이 절에서 학문을 연마할 터인데,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였다. 이렇게 각지의 정성이 모여 비록 여말의 각진 국사에 의한 3중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지만, 범릉 스님에 의한 4중창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이 무렵 대웅보전의 복원이 완공되었던지, 인조 1년(1623)에 대웅전의 본존불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4중창의 시기는 여러 기록에 정유난 이후로 막연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대웅전이 복원되었던 1620년대에 이뤄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인조 22년(1644)에 조암스님이 전각 일부에 단청을 새로 하는 등 5칸을 중수하였고, 효종 5년(1654)에는 冥府殿에 지장탱화를 조성하였으며,<sup>5)</sup> 숙종 원년(1675)에는 정문을 7칸으로 증축하는 일련의 불사가 있었다.

그 후로 숙종 20년(1694)에는 海稜스님이 법당과 전각의 허물어진 곳을 바로 잡아 5중창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성한 것은 쇠하기 마련이듯 가람은 차츰 기울어가고, 이때마다 여러 스님들이 절에 머물며 중수해 나갔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차례의 중창을 거쳤으나, 아직도 절의 규모는 예전에 비해 줄어 있었다. 이 무렵 법당과 불전은 5개소로 그리고 요사는 수백 칸에서 그 10분의 1로 축소되었고, 인근의 암자도 10곳 중에 2곳 정도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숙종 28년(1702)에는 팔상전에 팔상탱화를 조성·봉안하였고, 숙종 31년에 다시 7칸을 새로 지으며 낡은 기와를 수선하였다. 이듬해 1706년에는 팔상전에 16나한상을 조성하였다.

이처럼 영조 17년(1741) 이전에 채은 스님에 의해서 6중창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李孝宇가 지은 <母岳山佛甲寺記>와 李萬錫이 지은 <佛甲寺古蹟記>에 남아 있다. 이 기록에 의해 불갑사의 중창에 관한 역사를 알 수 있으므로, 姜沆의 <佛甲寺重修勸施文>과 더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로 영조 40년(1764)에 대웅전이 중수되고, 이듬해에 그 동안의 중창불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母岳山佛甲寺重創序>라는 현판에 그 내용을 남겼다. 이 무렵 절에는 스님 30여명이 거주하였고, 전답이 285필지 27결 81부 1속에 달하였다고

5) 覺性, <冥府殿地藏·十王造像記>, 『靈光 母岳山 佛甲寺』(서울: 동국대 박물관, 2001), 168. “大明順治11年甲午7月16日 靈光郡母岳山佛甲寺扶宗授教國一都大禪師覺性 (以下省略).”

한다. 순조 2년(1802)에는 得性대사가 대대적으로 가람을 중창하였는데 이를 7중창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종 6년(1869)에는 雪竇선사가, 고종 13년(1876)에는 雪坡선사가, 고종 16년(1879)에는 東成선사에 의해 각각 중창불사가 있었는데, 이를 8중창으로 보고 있다. 이후 1904년에는 금화대선사가 만세루를 중수하고 이어서 1907년에 사천왕탱화를 봉안했으며 또한 1909년에 동과스님과 함께 대웅전을 보수했다. 한편 1937년에는 만암 스님이 후원 자리에 있던 명부전을 현재의 대웅전 앞쪽으로 옮겨 짓고, 각 전각의 불상에 개금을 새로 하였다. 萬歲樓는 1938년에 雪醜스님이 개수하면서 누각의 왼쪽을 한 칸 줄여 6칸으로 축소하였다. 이때를 9중창으로 보고 있다.

## 2.2 冥府殿 造成

### 2.2.1 건축연대

명부전은 명부세계의 교주인 地藏菩薩과 判官인 十王과 使者 등의 존상을 봉안하는 전각이다. 이 전각은 앞면 3칸과 측면 2칸의 맞배지붕 형식의 목조건물이다. 이 건물의 건축연대는 지난 1998년에 내부의 시왕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冥府殿地藏·十王造像記>에 의해서 그 단서를 추적해 볼 수 있다. 이 조상기에는 覺性스님이 順治 11년(효종 5, 1654)에 조성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늦어도 1654년 이전에 건축되었던 사실은 입증된다.<sup>6)</sup> 그러나 명부전의 존치에 관한 언급은 李孝宇가 범릉 대사의 4중창 사실을 기록한 <母岳山佛甲寺記>에서 ‘冥府猶存<sup>7)</sup>’이란 내용이 보이고 있다. 이로서 명부전은 조상기의 기록보다 앞선 法稜대사의 4중창 시기인 1620년대에 이미 건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건축된 명부전의 위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에 세워졌다. 일제

6) 上揭書.

7) 李孝宇, <母岳山佛甲寺記>, 『靈光郡母岳山佛甲寺古蹟及位施沓錄』(영광 불갑사 소장 필사본) 참고.

시대인 1933년에 간행된 『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사진에 의하면, 본래 이 명부전은 대웅전 왼쪽에 있는 지금의 요사채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그리고 <母岳山佛甲寺記>에는 法稜대사의 4중창 이후로, 현재의 명부전 자리에는 禪堂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일제시대 1937년에 선당이 위치했던 자리로 이견한 사실이 曼庵의 기록에서 확인 된다.<sup>9)</sup> 이상의 사실로 보아 명부전은 본래 임진 왜난 이후 법릉 대사에 의한 4중창 시기인 1620년대 후반에 지금의 요사채 자리에 건축되었다가, 그 후 1937년에 대웅전 우편의 위치로 移建되었으나 지금은 다시 원래의 자리에 복원하였다.

## 2.2.2 내부존상

명부전 안에는 현재 모두 21구의 尊像이 모셔져 있다. 불단 중앙에는 地藏菩薩像을 그 오른편에 無毒鬼王像이 그리고 왼편에 道明尊者像의 地藏三尊像 3구가 봉안되어 있고, 명부세계에서 地藏菩薩을 도와 死者를 심판한다는 十王 10구와 判官·祿仕·使者의 존상이 각각 2구씩 중앙의 지장상을 중심으로 좌우로 ㄷ자 형으로 모셔있다. 그리고 문열 좌우로 守門將 각 1구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외에 시왕의 동자상 10구가 조성되어 있다. 이 동자상은 지난 1987년에 그 중 일부가 도난을 맞았는데, 2001년에 그 중 일부를 되찾아 와서 현재는 별도로 다른 곳에 보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존상은 조상기에 절대연대가 명기된 바와 같이, 1654년(효종 5)에 조성된 연대가 분명한 우수한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 목조 조각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불단 중앙의 지장보살상은 명부전의 주존불로 조선후기에 유행했던 민머리의 성문비구형으로 높이는 110cm에 이르는 木造坐像이다. 오른편의 무독귀왕상은

8)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京城: 朝鮮總督府, 1933), 冊13, PL1874.

9) 曼庵, <佛甲寺冥府殿移建及改金改彩記>, 『靈光 母岳山 佛甲寺』, 前掲書, 190. 所收. “本寺冥府殿, 僻在于奥幽處, 非但法衆之晨夕焚修不便, 使一般參拜者, 亦不得容易之路, 缺憾太多之際, 地藏聖像與十王尊像, 俱爲脫金脫彩, 所謂信仰者之飲恨慨歎, 與日俱深矣. 當寺住持安淨演, 奮然發意, 與山野篤信諸氏, 各盡其力, 同殿移建于寺之南庭, 聖像尊像, 改金塗彩, 煥然一新.”

일반적으로 문관이나 군왕의 근엄한 모습으로 묘사되며, 때로는 經机나 經卷을 들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불감사의 무독귀왕상은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과 유사하며, 머리 위에 시왕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류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원편에 시립하고 있는 도명존자상은 조선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듯 나이 어린 사미수도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작고 둥글어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청신한 사미의 분위기를 풍긴다.

그런데 覺性의 조상기를 보면, 중앙의 지장보살상을 비롯하여 각 존상의 조성시에 복장이 시행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는 복장에서 나온 조상기에 각 존상의 구성에 관련된 시주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 중에 복장과 관련된 내용은 ‘喉鈴通施主高萬仞兩主 / 腹藏施主奉化單身 / 腹藏施主信江兩主 / 腹藏施主朴弘生兩主’라는 시주명이 각각 보이고 있어, 복장의식이 시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1998년 복장 수습시에 중앙의 본상인 지장보살상의 복장물은 이미 도굴된 상태여서 수습할 내용물은 전혀 없었고, 그 밖의 20존상에서는 1378년에 경기도 여주의 鷲巖寺에서 간행된 『直指』 등 高麗本 5책을 비롯하여 함께 119종 135책이 발견된 바 있다.<sup>10)</sup> 특히 이 연구의 대상본인 『妙法蓮華經』 卷3의 殘卷도 이곳의 여러 존상들에 나뉘어 복장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 3. 「妙法蓮華經」의 漢譯 및 編成

#### 3.1 法華經의 譯本

이 연구의 대상본인 『妙法蓮華經』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으로 널리 알려

10) 이 당시 수습된 腹藏本은 필자에 의해서 조사되어 2001년 4월에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보물 1470호로 승격되었다. 또한 이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2001년 3월에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발행한 『靈光 母岳山 佛甲寺』에 <佛甲寺의 佛教典籍>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 복장본만을 종합 정리하여 『靈光 佛甲寺의 佛教文獻』(서울: 태학사, 2005)으로 발행하였다.

져 있다. 이 경전의 원서명은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saddharma-pundarika-sutra”로 불리며, 그 의미는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로 풀이된다. 이를 흔히 ‘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법화경의 성립 연대는 다른 대승경전 처럼 확실치 않으며, 대략 3차에 걸쳐 기원후 2세기 중엽까지는 소품 단위로 결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법화경은 불교의 동진과 더불어 여러 구법승에 의해서 인도의 서북지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래되었다.<sup>11)</sup>

전래의 초기 단계에는 현재와 같은 27품 내지 28품의 완전한 경전이 동시에 입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서역의 도래승이나 중국의 구법승에 의해 구득이 가능했던 소수품 단위로 전입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한역의 초기단계에는 소품 단위의 역경이 진행되었던 현상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 불교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초기의 安世高와 支婁迦讖과 같은 서역 귀화인에 의한 역경에서 5세기 이후로 法顯 등 중국인에 의한 본격적인 역경작업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법화경 또한 이러한 전래 및 역경과정을 거쳐 널리 유통되었다. 법화경의 역본으로는 일반적으로 ‘六譯三存’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법화경의 譯本과 그 현존 통행본을 <표 1>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妙法蓮華經」의 譯本과 存本

| 譯種 | 譯書名     | 譯者名  | 品數  | 卷數  | 譯經年  | 存/逸 |
|----|---------|------|-----|-----|------|-----|
| 1  | 法華三昧經   | 彊梁接  | -   | 6卷  | 255년 | 逸   |
| 2  | 薩芸芬陀利經  | 法護   | -   | 6卷  | 265년 | 逸   |
| 3  | 正法華經    | 法護   | 27品 | 10卷 | 286년 | 存   |
| 4  | 方等法華經   | 支道根  | -   | 5卷  | 335년 | 逸   |
| 5  |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 | 28品 | 7卷  | 406년 | 存   |
| 6  | 添品妙法蓮華經 | 達摩笈多 | 27品 | 7卷  | 601년 | 存   |

이상 6종의 법화경 한역본 가운데 연구 대상본은 鳩摩羅什이 406년에 번역한 7권본으로 가장 간결하고 유려한 역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隋·

11) 水野弘元 著, 李美玲 譯, 『경전의 성립과 전개』 (서울: 시공사, 1996), 85-123 참조.

唐代의 敦煌本 寫經은 거의 대부분이 이 역본을 저본으로 사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사경 또한 구마라집 역본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현존하는 우리의 판본류에는 대장경에 편입된 2종의 譯本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이 28品 7卷本인 鳩摩羅什의 譯本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 3.2 鳩摩羅什 譯本の 編成

불교 경전의 漢譯 과정에는 중국의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외국인 스님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오히려 한역의 초기단계에서는 내국인보다도 서역의 외국인 스님에 의해서 경전의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5세기 이후에 비로소 法顯 등 내국인에 의한 본격적인 역경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역 초기단계의 대표적 역경스님으로 서역승 鳩摩羅什을 들 수 있다.

구마라집은 기원후 350년에 중앙아시아의 구차(庫車 = 龜茲)에서 태어나 409년에 중국의 長安에서 열반하였다. 그의 부친은 본래 인도사람인 鳩摩羅炎으로 명문 집안의 출신이었으나, 출가 후 구도 차 구차에 와서 왕의 누이와 결혼하여 구마라집을 낳았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鳩摩羅(夫) + 什(母)’이라 이름 하였으며, 이를 약칭하여 ‘羅什’이라 하고 의역하여 ‘童壽’로 이름 하기도 한다. 그는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와 함께 출가한 이후 스무 살에 구족계를 받아서 어엿한 比丘가 되었다. 그후 前秦을 이은 後秦의 姚興이 사신을 보내어 그를 초빙하여 弘始 3년(401)에 구차를 떠난 지 10여년 만에 비로소 중국 장안에 당도할 수 있었다. 이에 요흥은 그를 국사로 예우하였으며, 羅什은 장안의 西明閣과 逍遙園에 머물면서 불교경전의 번역에 몰두하여 35부 294권을 완역했다. 그의 많은 역경 중에는 406년에 번역된 법화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구마라집에 의해 번역된 법화경은 그 내용이 모두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쑤 7卷本으로 裝軸 또는 製冊되어 있다.<sup>12)</sup> 羅什에 의해 번역

12) 그런데 敦煌 寫經의 일부와 佛宮寺 遼本에는 8卷本으로 製冊된 것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된 법화경의 각 권차에 따른 세부 편성체제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鳩摩羅什 譯本 法華經의 編成體制

| 編成 | 序分   | 正宗分  | 流通分 |   |
|----|------|--|-----|---|
| 卷1 | 序品第1 | 方便品第2  | 卷6  | 隨喜功德品第18, 法師功德品第19, 常不輕菩薩品第20, 如來神力品第21, 囑累品第22, 藥王菩薩本事品第23 |
| 卷2 |      | 譬喻品第3, 信解品第4   |     |   |
| 卷3 |      | 藥草喻品第5, 授記品第6, 化城喻品第7                                  |     |   |
| 卷4 |      | 五百弟子授記品第8, 授學無學人記品第9, 法師品第10, 見寶塔第11, 提婆達名品第12, 勸持品第13 | 卷7  | 妙音菩薩品第24, 觀世音菩薩普門品第25, 陀羅尼品第26, 妙莊嚴王本事品第27, 普賢菩薩勸發品第28      |
| 卷5 |      | 安樂行品第14, 從地涌出品第15, 如來壽量品第16, 分別功德品第17                  |     |   |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서분에 서품 1품, 정중분에 비유품 등 16품, 유통분에 수희공덕품 등 11품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불갑사 명부전의 시왕상에서 발견된 법화경은 제5품 藥草喻品으로부터 제7품 化城喻品 일부에 이르는 卷子本으로, 全 7卷 중에 권3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 4.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 卷3의 現狀

##### 4.1 腹藏遺物의 收拾經緯

지난 1998년 늦은 여름에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호남 서부지역은 다른 어느 곳보다 피해가 심각했었다. 지금도 그 때의 강풍으로 뿌리가 썩은 나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나라 신라시대에 8卷本 法華經이 유통되었던 사실이 一然의 「三國遺事」 卷3 塔像 第四, ‘臺山五萬眞身’條에도 보이고 있다. 일본의 和歌山 金剛峯寺에는 1081년에 쓰여진 8권본 紺紙金泥寫經이 보존되어 있는데, 현전하는 8권본 중 가장 빠른 것이다. 참고로 일본 불경은 대부분 8권본에 해당된다.

흔히 볼 수 있다. 참으로 준엄한 자연의 법칙이다. 이런 태풍의 피해는 사찰이라고 비켜가지는 않는 모양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찰이 넓은 평지를 향해서 계곡을 안고 있는 지형에 자리하고 있는 까닭에 강풍에는 더욱 취약할 수도 있겠다.

영광의 모악산에는 백제시대 고찰인 불갑사가 소재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위에서 말한 전면 평지에서 좌우와 후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형상으로 평지의 바람이 합류하여 부딪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불갑사의 경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의 53단으로 된 계단을 올라 천왕문을 통해서 이르게 조성되어 있다. 현재의 천왕문은 본래의 자리에서 뒤쪽으로 10m 물려서 중건되었는데, 본래의 자리 부근에는 계단 양쪽에 높이 30m 둘레 2m 가량의 전나무 2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이 나무가 넘어지면서 천왕문 쪽으로 쓰러져 천왕문의 기와지붕 일부와 내부의 사천왕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해당 당국에 시급히 보고하고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한편 정밀조사를 착수했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천왕문의 사천왕상에서 중간본 『月印釋譜』(卷21) 등 복장전적 일부를 수습하였다.

한편 일찍부터 명부전 및 팔상전 내부의 존상이 수차에 걸쳐 도굴범의 표적이 되어 지난 1987년에는 명부전 안에 있던 동자상 일부가 도난을 맞았던 사실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천왕상의 복장 수습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차체에 복장을 수습하고 보안시설을 강화하자는 사찰측의 제안이 있었다. 그 후 1개월이 지난 무렵에 명부전에 도난범이 재차 침입했다는 전언이 있어 현장을 방문했다. 과연 명부전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서 오른쪽 문의 연결고리를 예리한 쇠톱으로 잘라내고 문짝을 들어내려는 시도를 확인하였다. 이에 하루빨리 내부 존상의 복장물을 수습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고하였다.

그 후 필자는 사찰측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998년 9월에 명부전 및 팔상전 내부 존상에 대한 복장물의 수습을 실시하게 되었다. 먼저 복장 해체에 앞서 불갑사 대덕 수산 큰스님의 발원과 의례를 봉행했다. 그리고 팔상전과 명부전의 내부 촬영을 실시한 이후 복장해체 및 수습작업을 착수했다. 그리하여 오전 중에는 대웅전 위쪽에 자리한 팔상전의 나한존상의 복장을 수습했으며, 오후에 명부전

존상 20구의 복장을 차례로 처리했다. 각 존상의 복장형식은 거의 유사했으며, 단지 복장 입구가 대부분 몸통의 뒷부분에 있으나 경우에 따라 머리 및 발판 부분 등에 위치하기도 했다. 복장품은 모두 불교서적으로 한 책을 분책하여 여러 존상에 나누어 넣어 놓았으며, 또한 같은 형식의 造成記와 靑銅 喉鈴通이 들어있었다.

복장 수습 전에는 명부전 및 팔상전의 尊像들이 조선후기인 17세기 중반에 조성된 비교적 후대의 작품으로 복장물의 가치에 대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으나, 수습과정에서 예상 밖의 전적이 발견되면서부터 점차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복장해체 과정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에 대해서는 이미 동국대 박물관 발행의 『靈光 母岳山 佛甲寺』(2001年刊) 지표조사 보고서에 그 전모를 발표한 바 있다.<sup>13)</sup> 다만 본 연구의 대상자료인 卷子本 「妙法蓮華經」 卷3만은 전체적인 특징이 현존본과는 그 형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다 상세한 분석과 고찰을 요하는 관계로 별도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腹藏本 法華經 卷3은 명부전 시왕상 5구에서 2-3張 단위로 발견되었다. 수습 당시는 작은 존상의 몸통부분에 복장하기 위해서 마치 작은 공 정도의 크기로 뭉쳐있는 상태였다. 이 책이 처음 복장에서 발견되었을 때, 직감적으로 書體와 板式상의 특징이 初雕大藏經과 전혀 달라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이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본이 없는 상황에서는 쉽사리 어떤 단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다가 몇 개의 존상을 해체한 후 ‘卷首題’가 기재된 맨 앞장이 발견되는 순간 무언가 실마리가 잡히는 듯했으나, 이 역시 처음 접하는 서명 형식이었다. 첫 장의 권수제에는 “妙法蓮華經藥草喻品第五 三”이 한 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여야 할 ‘譯者表示’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경전이 비로소 ‘妙法蓮華經’이란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되었으며, 또한 끝부분의 ‘三’이라는 숫자가 바로 卷次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존상의 복장물을 수습한 이후로 조사해보니, 복장본 중에 卷子本 형태로는 이 법화경이 유일한 책이었다. 이 권자본 법화경은 3張 단위가 4軀의 존상과

13) 宋日基, <佛甲寺의 佛教典籍>, 『靈光 母岳山 佛甲寺』, 208-283 참고.

2張 단위가 1軀의 존상에서 각각 분리된 상태로 수습되었는데, 모두 14장의 분량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장수는 張1에서부터 張14에 해당되어 중간에 빠진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張14 이후 여러 장에 해당되는 분량이 逸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복장 수습과정에서 3몽치가 완전히 삭은 상태로 노출되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이처럼 卷末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이 범화경에는 刊記가 없다. 따라서 이 책의 刊年을 추정하는 문제는 板式, 紙質, 書體 등 여타의 다른 특징을 분석한 이후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만 卷首題의 표기 방식만은 금방 初雕大藏經 이전의 書名法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후시 <玄化寺碑陰記>에 기록으로만 전하던 玄化寺本의 실물 출현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다음 같이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 4.2 法華經 卷3의 주요특징

### 4.2.1 板式

불갑사본 범화경의 邊欄은 上下單邊이며, 界線은 보이지 않아 전체적으로 매우 간결하고 단순하다는 느낌을 준다. 각 張의 크기는 대략 51.5×27.9cm로 측정되었으며, 한 장은 26行씩 수록되어 있다. 다만 張1과 張7의 크기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張1의 길이는 47.5cm로 다른 장에 비해 4cm 정도 작다. 이처럼 길이가 작은 까닭에 다른 장에 비해 行數도 23行으로 배열되어 있어 3行이 적다. 또한 張7의 경우도 길이가 50cm로 1.5c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역시 25行만이 배열되어 있어 1行이 적다. 상하간의 匡高는 21~21.5cm로 각 장마다 0.5cm 사이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발견 상태로 보아 본래는 卷子本 형식으로 되었으나, 복장시에 2~3장 단위로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장본 범화경의 현상은 부식 또는 충식 상태가 전체의 절반 가량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이상의 외형적 특징을 <표 3>으로 정리했다.

<표 3> 新出 卷子本 「妙法蓮華經」 卷3의 現狀

| 區分 | 張次 | 行數 | 各 張의 크기(cm) |      |           | 狀態 |
|----|----|----|-------------|------|-----------|----|
|    |    |    | 길이          | 紙高   | 匡高        |    |
| 1  | 張1 | 23 | 47.5        | 27.7 | 21~21.2   | 不良 |
|    | 2  | 26 | 51.3        | 27.7 | 21.4      | 不良 |
|    | 3  | 26 | 51.3        | 27.7 | 21.3      | 良好 |
| 2  | 4  | 26 | 51.5        | 27.9 | 21.1      | 良好 |
|    | 5  | 26 | 51.5        | 27.9 | 21.1      | 良好 |
|    | 6  | 26 | 51.5        | 27.9 | 21~21.1   | 良好 |
| 3  | 7  | 25 | 50          | 27.9 | 21.3~21.5 | 不良 |
|    | 8  | 26 | 51.5        | 27.9 | 21.5      | 良好 |
|    | 9  | 26 | 51.5        | 27.9 | 21.3      | 良好 |
| 4  | 10 | 26 | 51.5        | 27.7 | 21.1~21.2 | 良好 |
|    | 11 | 26 | 51.5        | 27.9 | 21~21.1   | 良好 |
| 5  | 12 | 26 | 51.5        | 27.9 | 21.3      | 不良 |
|    | 13 | 26 | 51.5        | 27.9 | 21.2      | 不良 |
|    | 14 | 26 | 51.3        | 27.9 | 21.1      | 不良 |

다음으로 각 장의 粘連 부분에는 ‘法’, ‘法華’, ‘法華經’ 등의 간략서명이 없이 단순히 ‘三 二’라는 卷數 및 張次의 표시만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전·후장이 겹쳐서 부쳐있어 잘 나타나 있지 않다.<sup>14)</sup> 이는 본문의 卷·張次 식별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목판의 순차적 배열이나 印出 후 순서에 따른 粘連 작업상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겨놓은 초기단계의 板首題 형식으로 이해된다.

#### 4.2.2 字體

이 책이 명부전의 시왕상에서 처음 발견되던 순간 인쇄면에 나타난 字體의 특징이 자못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12세기

14) 그런데 張1의 권수제가 기재되어 있는 앞쪽에도 풀칠한 흔적이 보이고 있는 바, 혹 변상도가 부쳐있었거나 아니면 본래 겹표지가 별도로 마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에 간행된 고려본의 서체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예리하고 險勁함이 보이고 있어, 오히려 10세기 전반에 건립된 고려초기 塔碑의 서체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그것은 전형적인 歐陽詢體이나, 그 예리한 筆意는 오히려 歐陽通의 서체에 가깝다. 이러한 특징은 隋·唐寫經에서는 흔히 볼 수 없으며, 라말려초에 유행한 서체이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能·勝·願·正·足·定·因·隱’ 字 등에서는 다분히 寫經體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 있다. 이러한 점은 羅代 간본으로 추정되는 『無垢淨光經』의 字體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복장본 범화경의 자체는 나말에서 고려 초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여러 고승 塔碑의 서체와도 무관치 않은데, 특히 당시의 대표적 書家인 李栢樞, 仇(具) 足達, 柳勳律 등의 서체가 지목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서체의 특징은 고려 건국초기의 건실한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상되는 부분이다.<sup>15)</sup>

#### 4.2.3 紙·墨

다음으로 紙質·墨汁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과학적인 분석 이전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되는 특징만으로도 그 재료가 닥나무 껍질(楮皮)이라는 사실과 搗砧이 매우 잘된 종이라는 점을 직감할 수 있다. 발문은 세로로 굵고 희미하게 보이고 있으며, 간혹 완전 분해되지 않은 닥 섬유질이 보인다. 복장 수습당시의 현상이 주먹밥을 뭉쳐놓은 것처럼 구겨놓은 상태였던 것이 얼마 후 마치 인위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그리 구김이 보이지 않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종이를 비벼 흔들어 보니 맑은 소리를 내고 있어, 혹시 재료의 혼합과정에서 어떤 특수 성분을 배합하지는 않았을까도 생각된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면, 주재료나 혼합재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 인쇄 상태를 보면, 인쇄에 사용된 墨汁과 그의 혼합 상태가 매우 궁극한 문제이다. 그것은 인쇄면에 보이는 墨汁의 종이에의 着墨상태가 다른 책에서

15) 崔完秀, “우리나라 고대·중세 書藝의 흐름과 특징,” 『한국서예사특별전논문집』 (서울: 예술의 전당, 1998) 18, 26-33 참조.

볼 수 없는 특징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종이의 제조방법과 가공방식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나, 현상적으로만 설명하면 ‘吸收된 상태가 아니라 着墨된 상태’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영광 불갑사 명부전에서 발견된 권자본 범화경은 卷首題를 비롯해서 字體 및 紙墨의 형태적 특징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고려본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卷首題 및 卷·張次의 表記方式과 字體 및 避諱의 문제 등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리하여 다음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를 현존하는 실물자료와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 5.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 卷3의 刊年問題

### 5.1 卷首題 형식

#### 5.1.1 筆寫本과의 比較

##### 1) 隋·唐代 寫經類

불갑사 복장본 범화경의 卷首題는 “妙法蓮華經藥草喻品第五 三”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권수제는 經名 + 品名 + 卷次의 형식으로 한 행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역자표시는 없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王圓籙에 의해서 중국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돈황의 천불동 장경굴(17호) 石室이 발견된 바 있는데, 여기에서 대량의 사경이 수장되어 있었다. 이 때 발견된 사경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의 발굴단에 입수되어 상당량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이후 뒤늦게 중국 정부에 의해서 그 일부가 수습되어 대부분 北平圖書館(현재 북경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 분산 수장되어 있는 관계로 한동안 이 방면의 연구자들이 쉽사리 접근하기가 용이치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대만의 商務印書館에서 이를 「敦煌寶藏」이란 題名으로 영인 보급되어

비로소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책 중에 『妙法蓮華經』에 관한 부분은 전체 140冊 가운데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卷3에 해당되는 부분은 冊87~89에 집중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3책을 대상으로 卷頭부분을 조사해 보니, 그 중에 卷首題가 남아 있는 사경은 책87에 2종, 책88에 7종 등 모두 9종의 사경에서 확인되었다. 이 9종의 사경 중에 불갑사 복장본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8종이며, 다만 1종만이 권수표시 부분의 영인 상태가 확실치 않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敦煌寫經에 보이는 권수제의 특징은 불갑사 범화경과 완전히 일치되고 있으며, 또한 역자 표시도 나타나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 2) 新羅 『白紙墨書華嚴寫經』(755年 寫成)

이 사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유일한 新羅寫經이다. 더욱이 寫成年代가 755년으로 밝혀져 있고, 사경 참여자의 이름·출신지·역할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더욱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sup>16)</sup> 본래 이 사경은 新譯 華嚴經 80卷 전권을 寫成하여 8軸으로 제작했을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부분은 卷 1~10의 1축과 卷 44~50의 잔권 1축 등 모두 2축에 해당된다. 이 2축이 현재 호암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다.<sup>17)</sup> 그런데 화엄사경의 卷首題 역시 현존하는 17권이 모두 經名 + 品名 + 卷次의 형식으로 한 행에 기재되어 있으며, 단지 卷數와 譯本의 표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역자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로서 신라 『백지묵서화엄사경』의 권수제 형식 또한 불갑

- 16) 이 『白紙墨書華嚴寫經』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論考가 보이고 있다.  
文明大,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 『韓國學報』 제14집(1979).  
黃壽永, “新羅 景德王代의 大方廣佛華嚴經 寫經,” 『歷史學報』 제83집(1979).  
李基白, “新羅 景德王代의 華嚴經 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제83집(1979).  
崔範勳, “新羅 華嚴經寫經造成記 解讀,” 『경기어문학』 2(1981).  
南豊鉉, “新羅 華嚴經寫經造成記에 대한 語學的 考察,” 『東洋學』 21(1991).  
정재영,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研究,” 『문헌과 해석』 제12호(2000년 가을).  
이희관,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跋文의 基礎的 檢討,” 『문헌과 해석』 제12호(2000).
- 17) 근래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대전: 문화재청, 2000) 전권이 영인되어 보급되어 여러 방면의 연구에 매우 유용한 참고가 되고 있다.

사본 범화경과 완전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수·당사경 및 신라사경과 비교해 본 결과, 그 서명기재방식이 완전히 일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불갑사 복장본 범화경의 서명형식은 사본시대에서 판본시대로 넘어 가는 초기단계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이해된다.

### 5.1.2 木板本과의 比較

#### 1) 羅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8세기 전반)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1966년에 발견된 「無垢淨光經」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중간부분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식된 상태로 出塔되었다. 그리하여 발견 당시로부터 卷首題인 ‘無垢淨光大陀羅尼經’ 가운데 ‘尼經’ 2字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 책은 單卷本으로 별도의 品名은 없다. 따라서 권수제는 불갑사 범화경과는 직접적으로 비교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보존 처리되어 있는 상태가 권수제 다음에 ‘譯者表示’부분을 염두에 둔 듯, 본문의 첫 행과 약 0.5cm 가량의 공간이 더 여유 있어 보인다.<sup>18)</sup> 그러나 돈황의 唐 사경과 호암의 신라 사경, 그리고 고려 1007년에 간행된 攄持寺板 「寶篋印陀羅尼經」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권수제 다음의 역자표시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양국의 사경 및 간본의 특징으로 보아, 본래 「무구정광경」에도 필시 역자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唐本 「金剛般若波羅密經」(868年)

이 「金剛經」은 돈황의 장경굴에서 고고학자인 스타인(Stein 斯坦因)이 입수하여, 현재는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19)</sup> 주지하다시피 이 책에는 ‘咸通9年4月15日’이란 간행기록이 인쇄되어 있어, 당나라 懿宗 연간인 868년에

18) 「無垢淨光大陀羅尼經」(影印) (대전: 문화재청, 1999), 1 參照.

19) 최근에 중국의 上海古籍에서 간행된 「英藏敦煌文獻」(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의 冊14, 235-241에 전권이 영인 수록되어 있어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간행된 목판본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 역시 單卷本으로 별도의 品名은 없어, 특별히 불갑사 복장본 범화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권수제 다음 행으로 표시되는 ‘譯者名’은 위의 『무구정광경』과 같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隋·唐寫經의 권수제 및 역자표시가 없는 점과도 완전히 일치되고 있다.

### 3) 羅本 『晉本 華嚴經 卷20』(9세기)

이 책은 정재영 교수가 처음 소개한 목판본이다.<sup>20)</sup> 발표자는 진본 권20이 初雕大藏經 이전에 판각 印出되었으며, 특히 실물을 조사해보니 전면에 걸쳐 角筆(竹筆)로 찍은 符號口訣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전체에서 缺落된 부분은 없으나, 뒷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식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첫 행의 卷頭題는 ‘大方廣佛華嚴經金剛幢菩薩十廻向品之七’과 그 밑으로 ‘寸’이라는 표시가 한 행으로 기재되어 있다.<sup>21)</sup> 이처럼 이 화엄경 역시 經名 + 品名이 합쳐진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 행에는 ‘譯者表示’ 없이 바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이 화엄경의 서명법 역시 불갑사본 범화경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2)</sup> 다만 화엄경의 ‘寸’표시는 函次 또는 刻手표시 등의 의견이

20) 鄭在永,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研究』 제7집(2001).

21) 그런데 이 책의 卷首題에서 약간의 혼란상이 보이고 있다. 권수제는 經名 + 品名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經名에는 권차표시가 없으며, 단지 品名만은 品數를 ‘品之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권두의 정보만으로는 경명의 차례를 알 수 없으며, 다만 卷尾題를 통해서 권수를 파악할 수 있다. 다른 경전에는 일반적으로 ‘之’ 앞에는 ‘상위개념의 숫자’표시가 보이고 있으며, 아니면 아예 ‘第’라로 표기되어야 마땅하다. 과연 再雕藏經에 수록되어 있는 동일 경전에는 ‘之’ 앞에 ‘二十一’이란 상위개념의 품수가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권미제의 권수 ‘二十’은 동일하다. 이처럼 권차와 품차가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품차의 표기도 다른 경전의 표기 방식과 다르다. 이러한 문제는 再雕藏 卷14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권14의 앞쪽에 있는 다른 품과 ‘金剛幢菩薩十廻向品第二十一之一’이 함께 수록되어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장경 판각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板刻大藏經 이전의 서명 형식은 다를 수가 있어 차체에 사경을 포함한 고대의 서명 및 권차 표기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2) 그 후 필자에 의해 서지학적 검토가 있었다(宋日基, “古代 동아시아 書籍의 卷頭事項 變遷考,” 『文獻情報學報』(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회) 제6집(2003)).

제시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고찰을 요하고 있다.

4) 羅本 「晉本 華嚴經」 卷33(9-10세기)

이 판본은 東晉의 佛跋跋陀羅가 번역한 晉本 60권 중 권33을 9세기 무렵에 목판에 새겨 인쇄한 목판본 불경으로 필자에 의해 최근 학계에 발표된 바 있다.<sup>23)</sup>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가 결락되어 있으며, 비록 권수의 일부에 훼손이 보이고 전체적 일정한 간격으로 누습 흔적이 보이고 있으나, 권수와 권미가 온전한 상태이다. 전체는 19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7.5×900cm이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6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쓰여 있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黃染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마치 붓으로 쓴 것과 같은 사경체로 되어 있으며, 唐代의 전문 사경승이 쓴 유려한 사경서체와 매우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권수로부터 권미까지 온전하여 卷首題와 卷尾題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권수제는 ‘大方廣佛華嚴經普賢菩薩行品第卅一’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卅三’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 행에 역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역자표시는 없으나, 권수제로 보아 진본 권33에 해당되는 판경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권수제가 한행에 ‘經題 + 品題 + 品次 / 卷次’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고려시대 화엄경 사경 또는 판경의 권수제와는 전혀 다르다. 이는 오히려 중국의 수·당대 및 신라시대 고사경의 권수제 형식과 동일하다.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第卅三’으로 되어 있어 권수제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차와 품차의 숫자 ‘三十’이 ‘卅’으로 약기되어 있다. 그리고 권차의 造卷으로 보아 60권본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보아 이 책은 신라 말에서 고려초기인 대략 9-10세기 무렵에 전문 사경승이 쓴 사경을 저본으로 판각하여 간행된 불경으로 추정된다.

23) 송일기, “開運寺 阿彌陀佛 腹藏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12).

5) 麗本 『寶篋印陀羅尼經』(1007년)

이 책은 본래 김완섭 소장으로 천혜봉 선생에 의해 그 전모가 소개되어 널리 알려졌으나,<sup>24)</sup> 현재 일본 동경박물관 오구라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이와 동일한 목판에서 후에 인출된 자료가 나왔다.<sup>25)</sup> 그런데 전체적인 판식의 특징은 석가탑의 『無垢淨光經』과 매우 흡사하다. 卷頭に 수록된 識記에 의하면, 경기도 개풍군에 소재했던 攄持寺에서 統和 25년(1007, 고려 목종 10)에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본래 이 책은 讀經用的 목적보다는 『무구정광경』처럼 석탑 내에 안치할 儀禮用으로 판각되었기 때문에 卷首에 變相圖가 수록된 점을 제외하면 크게 다를 바 없다. 권수의 變相 다음으로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 2행으로 새겨져 있으며, 이어서 다음 행으로부터 바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 ‘譯者表示’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다라니경은 單卷으로 별도의 品名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11세기 이전에 간행된 목판본과 卷頭事項을 비교한 결과, 모두 ‘역자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화엄경의 경우에는 서명법이 완전히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불갑사본 법화경은 늦어도 10세기말 이전에 간행된 판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 5.1.3 『妙法蓮華經』板本과의 比較

1) 宋本 趙城金藏 所收 『妙法蓮華經』(開寶藏覆刻)

10세기 말엽에 각성된 開寶藏(宋板: 蜀板大藏經)은 현재 그 전본이 매우 희귀하여 그 전모를 살펴 볼 수 없다. 그 후 『趙城金藏』이 상당부분 ‘開寶藏’을 저본으로 1149년부터 1173년 사이에 복각되었다. 근년에 『趙城金藏』을 저본으로 총

24) 千惠鳳, “고려초기 간행의 寶篋印陀羅尼經,” 『圖書館學報』(서울: 중앙대 도서관학과) 第2輯(1973).

25) 최근 동일한 목판에서 후쇄한 인출본이 안동의 보광사 불상에서 수습되어 보물로 지정되었는데(서병패, “安東 普光寺 木造觀音菩薩坐像 腹藏典籍 研究,” 『聖寶』 제10호(2008), 5-27), 한편 이 자료는 陀羅尼類의 각판 형식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되고 있다(宋日基, “釋迦塔本 『無垢淨光經』 經板의 復原 檢討,” 『書誌學研究』 제42집(2009) 참고).

106책으로 영인된 『中華大藏經』이 간행 보급되었다. 그리하여 이 중화대장경을 통해 최초의 板刻大藏經인 開寶藏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sup>26)</sup> 이에 『중화대장경』 冊15에 所收된 法華經을 조사해 보니, 隋·唐寫經과는 물론, 개보장 이전의 羅代에 간행된 『無垢淨光經』과 唐本 『金剛經』의 卷首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목도된다. 그것은 經名과 品名이 분리 2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경명과 품명 사이에 ‘譯者表示’가 별행으로 기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권두의 제1행에는 위쪽으로 ‘妙法蓮華經卷第三’이 있고, 그 아래로 ‘鳴’字의 函次가 기록되어 있으며, 제2행에는 ‘姚秦三藏鳩摩羅什奉詔譯’이란 譯者事項이 보이고, 제3행에는 ‘妙法蓮華經藥草喻品第五’라 하여 經名과 品名이 한 덩어리로 합쳐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卷首題 부분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판대장경 이후로 개판된 판본에는 이와 같이 서명·역사사항이 정형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불갑사 복장본 법화경은 늦어도 송판대장경이 판각되었던 970년대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입증케 한다.

## 2) 麗本 再雕大藏經 所收 「妙法蓮華經」(13세기 중반)

고려에서는 11세기 전반에 刻板된 初雕本에 이어 13세기 중엽에 재차 초조본을 저본으로 再雕本을 翻刻해냈다. 그리하여 초조본 대부분이 失傳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재조본을 통해서 초조본의 특징을 고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법화경의 경우 아직까지 초조본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그런데 고려의 초조본 이전에 이미 송나라에서 宋板大藏經이 개판되자 이를 곧바로 수입해 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초조본 작업시에 송판대장경을 전적으로 저본으로 이용하였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재조본 작업시에는 이미 거란에서 각성된 遼板大藏經이 입수되어 참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관련성 즉, 각 경전마

26) 中華書局, <內容簡介>, 『中華大藏經』(臺北: 中華書局, 1984), 4-6 참고. 그리고 중화대장경 소수의 『趙城金藏』과 『高麗大藏經』을 비교하여 그 底本과 판각의 성격을 고찰한 논고가 보이고 있다(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 수록).

다 完全覆刻 또는 修訂覆刻 등의 여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비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단지 卷首題의 특징만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제 1행의 經名과 函次表示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제 2행의 譯者事項은 ‘後秦龜茲國三藏法師鳩摩羅什奉詔譯’이라 하여 姓名 앞에 있는 國朝 및 職位의 표기가 宋本에는 ‘姚秦三藏’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이 修正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제3행에는 ‘藥草喻品第五’로 품명만 표기되어 있어, 宋本에 나타난 經名부분이 삭제되어 단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법화경 판본 중 宋板 및 高麗板의 계열을 구별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再雕本 法華經에 보이는 卷頭題의 특징과 불갑사본 법화경을 비교해 보면, 재조본 법화경의 書名法은 상당히 발전된 정형적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 3) 遼本 『妙法蓮華經』(1003年)

우리나라에는 遼本の 현전본이 誠庵本 『華嚴經』을 제외하면, 그다지 소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sup>27)</sup> 그런데 지난 1974년 7월에 중국의 山西省 應縣에 소재한 佛宮寺木造釋迦塔 내에 봉안되어 있는 釋迦像에서 11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는 寫經類 30점과 板本類 47점에 이르는 다양한 불교전적이 대량으로 발견된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완전히 보존 처리하여 山西省博物館에 수장되어 있으며, 한편 이 중 일부를 영인 발행한 바 있다.<sup>28)</sup> 이 때 발견된 불교 전적 가운데 法華經 15점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遼板大藏經에 수록된 것과 私家板이 함께 발견되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遼代 私家板 중에 불갑사 법화경의 卷首題와 유사한 판본이 보이고 있다. 이는 요나라 聖宗 統和 21년(1003)에 板刻된 것으로, 遼板大藏經이 刻板되기 직전에 간행된 판본이다. 또한 遼藏으로 보이는 판본이 卷2와 卷8 등 2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권수제의 특징이 불갑사 법화경에 비해 한 단계 진전된 형식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법화경 판본은 모두가 28品 7卷本

27)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汎友社, 1990), 84.

28) 山西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應縣木塔遼代秘藏』(北京: 文物出版社, 1991).

인데, 이와 달리 遼本은 모두가 28品 8卷本으로 되어 있다. 品數는 동일하나 卷數만 8卷으로 製册한 까닭에 각 卷의 시작 品數가 상이하다. 예컨대 卷 3의 경우 7卷本은 제5품인 <藥草喻品>으로부터 제7품인 <化城喻品>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이와는 달리 8卷本은 제4품인 <信解品>에서 제6품인 <授記品>까지 편집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 방식은 간혹 唐寫經에서 볼 수 있는 사례이며, 단지 遼本의 판각 저본이 8권본 사경에서 유래되었음을 짐작케 한다.<sup>29)</sup>

이러한 특이점을 염두에 두고 遼本을 살펴보면, 私家板의 卷首題는 經名 + 品名 + 卷次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갑사본 법화경과 일치되고 있다. 물론 '譯者表示'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遼藏經으로 보이는 卷8(丙本)의 특징을 보면, 권수제는 '妙法蓮華經妙音菩薩品第二十四'와 그 밑으로 卷次 '八'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위의 사가판과 완전히 일치된다. 그러나 다음 행에 '姚秦三藏鳩摩羅什譯'이란 譯者표시가 첨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板本이 중국학자의 견해와 같이 遼藏이 틀림없다면, 바로 이 점이 사가판과의 구별되는 요소라 할 것이다.<sup>30)</sup>

이처럼 遼本의 私家板의 卷首題의 특징은 불갑사본 법화경과 완전 일치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遼藏의 경우는 여기에 새로이 '譯者'가 첨입되어 書名作法에 있어서 진일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중국의 書籍發達史의 관점에서 보면 10세기 전후의 寫經시대로부터 板經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특징으로, 이는 山西 應縣 佛宮寺의 釋迦塔에서 발견된 여러 불교전적에서 나타나 있다.

29) 그런데 일본 佐賀縣立博物館에 소장된 『紺紙銀泥妙法蓮華經』(忠肅王後元年: 1332 寫成)은 8권본으로 사경되어 있어, 사경시에 거란본을 저본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특히 일반적으로 고려사경 권수에 수록된 변상도의 匡郭을 金剛杵로 장엄한 특징은 거란본의 영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 없지 않다.

30) 그리고 卷首題 아래에 표시된 卷次 '八'의 글자의 위치가 私家版에 비해 지나치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오른쪽의 남은 공간에 대장경의 函次인 '在'자가 새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함차가 분명히 확인된다면, 이 역시 遼板대장경의 식별 요소인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화경 권3에 해당되는 高麗藏의 함차가 '鳴'字인데 비하여 遼藏의 함차는 '在'자인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여러 형태적 특징의 상이함은 차후 상세한 고찰을 요한다.

4) 西夏本 『妙法蓮華經』(1146年)

최근에 『俄藏黑水城文獻』이 간행되어, 1908년에 러시아 극동 탐험대 꼬즐로프(P.K.Kozlov, 1863~1935)에 의해서 현재의 內蒙古 西北部에 위치한 카라호트(Khara-khoto: 額濟納旗) 黑水城 遺墟의 佛塔에서 수습된 불교전적의 전반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이 책에는 法華經 일부 殘卷의 여러 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卷3~4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전부가 실려있다. 이 法華經은 모두 7卷本으로 매행은 16자씩 배자되어 있는 摺裝本이다. 특히 卷7의 末尾에 있는 跋文에 ‘大夏國人慶3年歲次丙寅5月’이란 간행기록을 통해서 西夏本 법화경이 1146년(고려 인종 24)에 板刻되었음을 확인케 한다. 따라서 이때 발견된 법화경은 대략 이 시기를 전후로 板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卷首에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는 變相圖 1枚가 실려 있으며, 그 다음으로 卷首題에 이어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 卷首題를 보면, 앞서 살펴본 여러 板本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西夏本의 卷首題는 제 1행에 ‘妙法蓮華經 卷第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어 제 2행에 ‘妙法蓮華經藥草喻品第五’로 표기되어 있다.<sup>31)</sup> 그런데 제 1행과 제 2행 사이에 있을 법한 譯者表示는 보이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유형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대체로 2가지 경우로 상정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寫經의 書名法에 卷數개념이 확립된 독립 經名 표기가 첨가되어 있어, 보다 발전된 서명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둘째로 이 책이 간행된 시기에는 이미 宋板과 遼板 大藏經이 刻成되었던 시대이다. 그리하여 서명의 기제에 있어서 宋板의 영향을 받아 譯者表示 부분만 생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적 발달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첫째의 경우가 합당한 추정으로 생각된다. 이를 불갑사본 법화경과 비교해 보면, 經名과 品名이 분리되는 과도기적 서명 표기의 형식으로 보인다.

31) 俄羅斯科學院 東方研究所 聖彼得堡分所, 『俄藏黑水城文獻』(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俄TK3> 參考.

5) 麗本 「妙法蓮華經」 板本類(13세기)

고려시대에 간행된 사가관 『法華經』 중에 고려 고종 23년(1236)에 鄭奮이 崔瑀와 그 일가의 長壽와 福樂을 기원할 목적으로 개관한 책이 현존하고 있다. 현재 이 판본의 後印本으로 알려진 卷3, 6, 7(No 21)이 경주의 祇林寺에 수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보물 959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上下單邊이며 각 행은 16자로 되어 있어 西夏本의 자수와 동일하다. 그러나 卷首題 다음 행에 ‘譯者表示’가 들어있는 점은 상이하며, 제3행에는 品名만 기입되어 있는 점은 고려판 대장경의 형식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림사 소장의 異板 法華經 卷1, 6, 7(No 22, 23, 39)은 卷首題의 형식이 앞의 판본과 다르다. 그것은 品名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經名과 함께 기입하고 있는데, 이는 宋板 대장경계통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초기 간본인 보물 968, 1145, 1194호로 지정된 판본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송판 대장경 개관 이후로는 비록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판본이 예외 없이 제1행에 經名, 제2행에 譯者, 제3행에 品名을 기입하는 형식으로 정착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불갑사 복장본 법화경은 늦어도 宋板 대장경 개관 이전에 간행된 판본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후로 고종 27년(1246)에 고려 무신정권의 실권자인 崔怡의 명으로 개관된 판본은 편집체제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 먼저 주목되는 점은 溫陵의 開元蓮寺 스님인 戒環의 注解가 수록되어 있으며, ‘譯者表示’ 다음 행에 分章表示가 보이고 각 행의 자수도 20字이다. 그리하여 卷首題의 형식이 譯者중심에서 注解者중심으로 전환되어 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32)</sup>

이상은 송판대장경 이후에 간행된 5종의 목판본 법화경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卷首題의 형식이 經名과 品名이 완전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또한 역자표시가 기재된 정형적인 형식으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33)</sup>

32) 高翊晉, “法華經戒環解의 盛行來歷考,” 『佛教學報』 12輯 參照.

33) 송일기, “古代 동아시아 佛經의 ‘卷首題 形式’ 考察,” 東亞細亞出版文化研究 國際學術會議(日本學術振興會), 2010. 3.

이러한 특징은 불갑사본 법화경의 서명표기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송판대장경의 간행 이전에 나타난 서명기재 형식으로 보인다.

## 5.2 卷·張次의 특징

### 5.2.1 宋板大藏經 이전 木板本

앞에서 卷首題의 기입형식의 변화 시점이 宋板대장경의 개판부터 확연히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불교전적의 형태적 특징이 사경의 형식으로부터 판본의 형식으로 완전히 변화된 시점이 바로 송판대장경의 개판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로 書名을 記入하는 형식에 있어 뚜렷한 구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명기입의 변화와 더불어 다른 板式의 특징도 함께 진전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板首題 및 卷·張次의 표시도 이 때 이르러 정형화되었던 것이다.

송판대장경 이전에 간행된 현존본은 羅代 간행으로 추정되는 『無垢淨光經』과 8세기 후반에 간행된 일본의 『百萬塔陀羅尼經』, 그리고 중국의 돈황에서 발견된 『金剛經』의 王玠 및 曹元忠 發願本 2종이 이에 해당된다. 그밖에 최근에 소개된 卷子本 『華嚴經』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종의 다라니경과 금강경은 單卷本이므로 이들에서 卷次 개념은 살피볼 수 없으며, 다만 張次 표시의 여부만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책은 모두가 국보급이어서 직접 실물의 확인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영인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다라니 2종에서는 張次 표시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금강경』 중에 당나라 咸通本(868年刊)은 張 1과 2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張 ‘三’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비록 張 ‘二’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粘連 부분에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曹元忠本(950年刊)은 蝴蝶裝 형식으로 製冊되어 있으며, 간행시기도 함통본 보다 후대여서 張次 표시가 있을 법한데,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sup>34)</sup> 그리고 근래 소개된 화엄경(卷20)에는 卷次 표시는

물론 張次 표시도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sup>35)</sup>

## 5.2.2 宋板大藏經 이후 木板本

개보장의 복각계통으로 알려진 『趙城金藏』에 수록된 『法華經』에는 매우 정형화된 板首題 및 卷·張次 표시가 보이고 있다. 『中華大藏經』에 영인 수록되어 있는 法華經에는 ‘妙法蓮華經卷第○ 第○張’이란 판수제 및 권·장차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鳴字號’란 函次표시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 이는 大藏經에 편입된 佛經의 가장 정형적인 판수제 및 권장차 표시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고려대장경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卷子本 형태인 初雕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표시를 잘라내고 粘連하였지만,<sup>36)</sup> 線裝형식인 再雕本의 경우에는 ‘妙法蓮華經卷第○ 第○張 鳴’으로 표기되어 있어, 함차 표기만 약간 다를 뿐 송판대장경과 거의 일치되고 있다.

한편 11세기 초에 간행된 遼板 法華經에는 불감사본 범화경과 卷·張次표시의 형식이 가장 일치되고 있으나, 그 표식 위치가 遼板의 경우 粘連 부분이 아니라 本文 속에 나타나고 있어 보다 진전된 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약간 후대에 간행된 遼藏의 경우는 ‘第○ ○’로 되어 있어 ‘第’가 부가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송판대장경의 형식 중 판수제 부분의 經名을 생략하여 간략하게 표기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시 작업자들에 의해 遼板과의 식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12세기 중엽에 간행된 西夏本 法華經에서는 간헐적으로 ‘三 二’와 같이 판수제 없이 권장차만 간략하게 本文 중에 빈 공간을 활용하여 표기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缺落된 권장차도 보이고 있으나, 粘連 부분에 표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밖에

34) 『英藏敦煌文獻』(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冊14, 235-241.

35) 趙炳舜 선생은 본래 판각시에는 卷·張次가 표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인쇄한 후 粘連할 때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이어 붙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사경에는 본문 중에 卷·張次표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초기 간본 일수록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매우 간략한 형식으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6) 動產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 1994~1995년 指定篇(서울: 문화재관리국, 1996), 16, 37, 118.

투루판의 高昌古城에서 발견된 古刊本 法華經 殘片 중에는 ‘三十三’과 ‘法華經三十八’로 표기되어 있는데, 후자는 板首題가 부가되어 있어 보다 발전된 권장차 표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sup>37)</sup>

고려본 華嚴經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周經第○’ 또는 ‘周’, ‘貞元’, ‘晉’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三本華嚴의 譯本 식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法華經의 경우에는 초기의 단순한 ‘法’, ‘妙’에서 ‘法華’ 또는 ‘法華經’으로 보다 구체적인 간략서명의 형식으로 표기되고 있다. 다음은 현전하는 高麗本 화엄경과 범화경의 주요 판본에 나타난 卷·張次표시를 조사하여 <표 4>로 작성한 것이다.

<표 4> 高麗本 華嚴經 및 法華經의 卷·張次表示(○는 張次표시 임)

| 書名/卷數 | 卷·張次表示  | 刻板年代     | 指定番號           | 所藏處        | 位置      |    |
|-------|---------|----------|----------------|------------|---------|----|
| 華嚴經   | 卷6      | 周經第六 ○   | 12세기           | 국보 203호    | 誠庵古書博物館 | 粘連 |
|       | 卷17     | 周十七 ○    | 肅宗年間<br>(1098) | 보물 688호    | "       | 本文 |
|       | 卷52     | 周五十二 ○   |                |            |         |    |
|       | 卷36     | 周三十六 ○   | 12세기           | 국보 204호    | "       | 粘連 |
|       | 卷6      | 周六 ○     | 肅宗年間           | 보물 690호    | "       | 粘連 |
|       | 卷28     | 晉二十八 ○   | "              | 보물 686호    | "       | 粘連 |
|       | 卷26     | 周經二十六 ○  | "              | 보물 959-13  | 경주 祇林寺  | 粘連 |
|       | 卷48     | 周四十八 ○   | 12-13세기        | 보물 959-14  | "       | 本文 |
|       | 卷79     | 周七十九 ○   | "              | 보물 959-15  | "       |    |
|       | 卷10     | 晉十 ○     | "              | 보물 959-16  | "       | 粘連 |
|       | 卷53     | 晉五十三 ○   | "              | 보물 959-17  | "       |    |
|       | 卷22     | 周二十二 ○   | "              | 보물 959-18  | "       | 粘連 |
|       | 卷55     | 周五十五 ○   | "              | 보물 959-19  | "       |    |
|       | 卷74     | 周七十四 ○   | "              | 보물 959-20  | "       |    |
|       | 卷2      | 貞元二 ○    | 12-13세기        | 보물 1017-1호 | 金敏榮     | 粘連 |
|       | 卷38     | 貞元三十八 ○  | "              | 보물 1017-2호 | "       | "  |
|       | 卷15     | 晉十五 ○    | "              | 보물 1017-3호 | "       | "  |
|       | 卷38     | 周經三十八 ○幅 | 肅宗年間           | 보물 1017-4호 | "       | "  |
| 卷31   | 貞元三十一 ○ | 14세기     | 보물 1154호       | 李吉女        | "       |    |
| 卷38   | 晉三十八 ○  | 13-14세기  | 보물 1192호       | 金贊鎬        | "       |    |

37) 藤枝晃, 『高昌殘影』(京都: 法藏館, 1978), 圖版番號 511-512 參考.

| 書名/卷數 |        | 卷·張次表示 | 刻板年代  | 指定番號      | 所藏處    | 位置 |
|-------|--------|--------|-------|-----------|--------|----|
| 法華經   | 卷3,6,7 | 法華經三 ○ | 麗末鮮初  | 보물 959-21 | 경주 祇林寺 | 粘連 |
|       | 卷1     | 妙一 ○   | "     | 보물 959-22 | "      | "  |
|       | 卷6     | 法六 ○   | 14세기  | 보물 959-23 | "      | "  |
|       | 卷3     | 法華三 ○  | 1401년 | 보물 968호   | 李正子    | 粘連 |
|       | 卷7     | 法七 ○   | 1240년 | 보물 977호   | 李元基    | 摺折 |
|       | 卷2     | 法華二 ○  | 1401년 | 보물 1194호  | 通度寺    | 摺折 |

이상으로 卷·張次 표기형식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권·장차 표기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은 송판대장경의 간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송판대장경의 개판 이전 시기에는 書名이나 譯本의 식별 의미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권차 및 장차 개념만 들어 있는 형식으로부터, 그 이후에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불감사 복장본 법화경의 매우 간략한 卷·張次 표시는 송판대장경 이전의 표기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간행시기도 그 이전임을 암시하고 있다.

### 5.3 避諱 문제

#### 5.3.1 典籍類

避諱는 경우에 따라 서적의 간행시기와 간행국가를 識別케 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初雕本 등에 나타나는 宋代의 避諱를 보고, 그것을 宋本으로 단정 짓지는 않는다.<sup>38)</sup> 그러나 고려 역대 왕의 피휘가 보이는 경우 복각본이 아니라면 그것은 高麗本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휘 방식에는 代字와 缺劃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宋本이나 고려본의 경우 대부분 缺劃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모든 典籍과 碑文 등에서 완벽하게 避諱法이 지켜지지 않는 듯 하며, 이 피휘만으로 刊年이나 國別의 識別을 速斷키는 어려우나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避諱는 단순히 典籍類

38) 千惠鳳,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調查研究」 (서울: 成保文化財團, 1988), 17-18.

뿐만 아니라, 碑文과 심지어 國王의 藏書印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佛甲寺 腹藏本 法華經에도 缺劃法에 의한 避諱가 보이고 있어 매우 주목되고 있다. 그것은 현전하는 14張 중에 張6의 5行5字의 단 한곳에서 高麗太祖 王建<sup>39)</sup> 이름의 同音字인 ‘捷’자에서 缺劃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위치 이후로 同一字가 두 곳에서 더 發見되고 있으나, 첫 번째 出現 字에서만 避諱 현상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목되는 사실은 고려 2대 혜종과 3대 왕정종의 이름자에서는 전혀 避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태조 이외의 避諱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책이 고려太祖 재위연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짐쳐진다.

그리하여 고려시대의 피휘법이 과연 어느 시기부터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고려시대 典籍類에서도 避諱 事例가 발견되고 있으나, 대부분 고려 후기에 간행된 전적에서 주로 보이고 있다.<sup>40)</sup> 비교적 고려 초기 刊本인 『寶篋印陁羅尼經』과 初雕大藏經 등에서는 아직까지 ‘建’자의 피휘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에 筆者는 順天 松廣寺에 소장되어 있는 大覺國師 義天이 간행한 教藏을 저본으로 조선시대 세조가 刊經都監에서 重修한 教藏 5종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 중에 遼 大安 9년(1093)의 原刊記가 있는 『大乘阿毗達磨雜集論疏』 卷13의 張9의 두 곳(1行5字, 2行9字)에서 ‘建’字의 缺劃 避諱를 확인하였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의 資料인 『注仁王護國般若經』(卷1-4)에서도 ‘建’자의 缺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sup>41)</sup> 이러한 사례는 비교적 고려 초기의 실례이기는 하나, 고려 태조와는 한 세기 반이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태조 연간의 피휘 사실을 입증하는 곤란하다.

그런데 崔瀼의 『東人之文四六』에 실려 있는 <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에 이를 입증케 할 만한 단서가 있다. 이 親製疏文의 머리에 高麗國王의

39) 王建의 姓·名은 그 정착과정에 논란이 되었는데, 특히 심우준 선생은 ‘姓’이 ‘建’이고 ‘名’이 ‘王’이라는 異論을 제기한 바 있다(沈隅俊, “王建先祖名 ‘建’에 대하여,” 『淑大史論』 第4輯(1969) 參照).

40) 南權熙, “興德寺字로 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覆刻本에 관한 研究,” 『文獻情報學報』(광주: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제4집(1990) 참조.

41) 『高麗佛書展觀目錄』(서울: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1963), 10.

官職名과 함께 姓名을 표기하면서 이름자 ‘建’자를 ‘諱’자로 대치하여 避諱하고 있는 사실이 보이고 있다.<sup>42)</sup> 이 사례는 바로 고려 태조 왕건 재위연간에 피휘가 실시되었던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나,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자료가 문서 형태이지 책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佛甲寺 腹藏本 法華經에 보이는 ‘捷’자의 피휘 사례는 불교전적을 통해서 고려 太祖 在位年間の 피휘 사실을 확인해 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이 法華經에 고려 3대 왕 定宗의 이름자인 ‘堯’자의 兼避諱字가 적어도 10회 이상 나타나고 있으나, 어느 곳에서도 전혀 避諱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 5.3.2 金石類

다음으로 고려 태조 왕건의 ‘建’자에 대한 피휘 사례를 고려 초기 碑文 중에 조사해 보니, 태조 재위 7년(924)에 건립된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에서 비로소 2회의 사용례가 보이고 있으나 모두 피휘 되어있지 않다. 이 탑비는 당시 신라의 芬皇寺 스님인 慧江에 의해서 碑文을 쓰고 새겨서 건립하였던 사실과 이때가 비록 왕건의 재위 기간이긴 하나 아직까지 고려의 세력권이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한 봉암사 지역에 미치지 못했던 시기였던 점으로 보아 고려 태조의 피휘가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같은 사찰에서 고려 光宗 16년(965)에 세워진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에서는 兼避諱字인 ‘捷’자의 避諱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입증된다 하겠다.

그리고 태조 재위 연간에 건비된 여러 탑비에서는 ‘建’자가 나타나지 않아, 피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 靜眞大師塔碑보다 앞서 定宗 1년(946)에 康津 無爲寺에 세워진 <先覺大師遍光塔碑>에서도 ‘建’자가 한번 출현하고 있으나, 하필 그 부분의 마멸상태가 심하여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두

42) 崔澗, ‘佛號條, 『東人之文四六』 卷8 張4(『高麗名賢集』 冊5, p.89 所收). 이러한 피휘법은 왕의 이름을 ‘諱’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張豪晟, “韓中 避諱法 考察,” 『漢文教育研究』 제13호, 440).

곳에서 惠宗의 이름자인 ‘武’자가 보이고 있는데, 모두 代字나 缺劃되어 있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先覺遍光碑에서 避諱의 시행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밖에 고려 태조 연간에 건비된 碑文에는 ‘建’자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탑비에 나타난 避諱의 상한 시기는 잠정적으로 정진대사탑비를 피휘 시행의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sup>43)</sup>

한편 이례적인 사례이긴 하나, 고려 숙종연간(1096-1105)에 사용된 藏書印의 銘文 중에 避諱가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한 기록으로는 조선 세조 연간에 활동했던 梁誠之의 文集에서도 진작 언급되어 있으며, 그 실물은 『宋本圖錄』 등에 수록되어 있어 일찍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근년 이에 관한 단편적인 소개의 글이 실려 세간에 관심이 된 바 있다.<sup>44)</sup> 현재 숙종의 藏書印이 찍혀있는 전적은 『新雕入篆說文正字』(御茶水藏), 『通典』(書陵部藏), 『文中子中說』(書陵部藏), 『重慶會史』(尊經閣藏), 『姓解』(國會圖書館藏) 등으로 모두 北宋시대에 간행된 木板本으로 알려져 있다. 이 藏書印의 印記에 ‘高麗國十四葉辛巳藏/藏書大宋建中靖國/元年大遼乾統元年’이란 내용이 보이고 있는바, 이 중에서 宋의 年號인 ‘建中靖國’의 ‘建’자가 마지막 획을 缺劃하는 방법으로 피휘 되어있다. 이처럼 고려 14대왕인 숙종 6년(1101) 이후에 이르러서는 국왕의 藏書印에서도 피휘를 시행하였던 자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려시대의 전적류와 금석류에 보이는 고려 태조 왕건의 피휘 사실을 살펴 본 결과, 태조 재위연간에 이미 피휘법이 실시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佛甲寺 腹藏本 法華經에 나타난 ‘建’자의 피휘는 이 책이 고려 태조의 재위연

43) 그밖에 탑비의 避諱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신라하대에 建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保寧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국보 제8호)에서는 ‘武’자가 무려 4회에 걸쳐 缺劃 避諱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탑비는 신라 말 眞聖女王 4년(890) 崔致遠이 撰文하고 崔仁浼이 書寫한 것이다. 그러나 이 碑文의 避諱에 대해서 일찍이 日人 金西龍에 의해서 주목되어 고려 8대왕 顯宗의 이름자인 ‘詢’자의 피휘를 근거로 그 건비시기를 현종대로 추정한 바 있다. 그 후 葛城末治에 의해서 이 탑비에서 唐 태종의 이름자인 ‘民’자의 결획 피휘가 발견되어 재차 신라 말의 건비 사실이 지적되었으나, 이후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다. 과연 ‘武’자의 피휘 대상자가 당 또는 신라시대 인물인지, 아니면 고려 2대왕 惠宗의 이름자를 피휘한 것인지의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44) 박철상, “고려 숙종의 장서인,” 『문헌과 해석』 제15집(2001년 여름), 32-38.

간에 간행되었음을 입증케 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sup>45)</sup>

## 5.4 字體 검토

### 5.4.1 書寫體의 特徵

필자는 불갑사 명부전 복장본인 권자본 『法華經』 卷3을 처음 대면하고, 직감적으로 고려 초기에 세워진 塔碑의 書體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느꼈다. 앞서 형태적 특징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체적인 書體의 특징은 歐陽詢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더욱 예리한 부분은 歐陽通의 筆意를 法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고려 초기의 대표적 塔碑로는 고려 태조 20년(937)에 황해도 해주의 廣照寺에 建碑된 <須彌山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를 비롯해서 동왕 22년(939)에 경기도 양평의 菩提寺에 세워진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와 경상북도 풍기 비로암의 <毘盧庵真空大師普法塔碑>, 그리고 강원도 명주의 <普賢山地藏禪院朗圓大師悟眞塔碑>(940年立), 충청북도 증원의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943年立), 전라남도 강진의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946年立) 등으로 모두 왕건이 후삼국을 통합한 이후에 조성된 것이다. 당시의 대표적 書寫者로는 李桓樞, 具足達, 柳勳律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歐陽體를 바탕으로 이를 高麗化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sup>46)</sup> 이처럼 불갑사본 法華經의 字體는 위의 書者들에 의해

45) 고려 태조 연간의 出版事實에 대해서는 李承休의 『動安居士集』에 찾아볼 수 있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전국의 裨補地에 많은 사찰을 세우고, 이곳에 신교의 명승들을 招致하여 법회를 주관케 하였으며, 한편으로 讀經에 소용되는 佛經을 刻板 印出하여 贈與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李承休, <看藏寺記>, 『動安居士集』, 『雜著』). “太祖神聖大王, 端以聖明, 勃興衰季, 係大早雲霓之望, 聳義徂征救萬民塗炭之艱, 統業垂統, 乾坤繞漢, 士女蘇湯, 以舜帝在衡之明, 用(道)說師相地之訓, 可州州, 可郡郡, 定厥民屋, 宜教教, 宜禪禪, 創諸佛寺, 選名僧而主法, 奉勝典以歸誠, 既刻鏤以印成, 亦金銀而筆授, 當水脉山鉗之津會, 使鎮而安, 豈邦基國柢之蕪綿, 於是乎在.” 따라서 이 기록은 태조 왕건 재위기간인 고려 초기에 출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문헌사료이다.

46) 崔完秀, 前揭書.

서 歐體를 근간으로 굳건하고 예리하게 쓰여진 碑文의 書體를 방불케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無垢淨經』과 『寶篋印陀羅尼經』에서 보이는 寫經體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寫經體字로는 ‘能·願·隱·勝·足·定·正·因’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에 正과 因자는 일부 正字가 보이고 있어 과도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경체자는 初雕本 이후로 모두 正字로 정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경체자는 고려 초기 간본의 경우에 있어서 初雕本 이전 木板本을 식별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주목된다.

#### 5.4.2 異體字의 比較

불갑사본 범화경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異體字로는 ‘無·関’자를 들 수 있는데, 이 글자는 隋·唐寫經類에서는 開元 9년(721) 寫經 1종을 제외하고 모두 ‘无·礙(導)’자로 쓰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敦煌寶藏』에 수록된 사경 중에 寫成연대가 기록된 것과 15세기 이전 간본에 나타난 異體字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표 5> 隋·唐寫本과의 異體字 對比表

해당 위치의 (\*)은 缺落 부분으로 [추정]인

|          | 隋寫本<br>大業4(608)            | 唐寫本<br>總章1(668)            | 唐寫本<br>咸亨2(671)            | 唐寫本<br>咸亨3(672)            | 唐寫本<br>上元3(676)            | 唐寫本<br>長壽2(693)            | 唐寫本<br>開元9(721)            |
|----------|----------------------------|----------------------------|----------------------------|----------------------------|----------------------------|----------------------------|----------------------------|
| 佛甲寺本     | 敦煌寶藏<br>冊19 收錄<br>(斯2419號) | 敦煌寶藏<br>冊36 收錄<br>(斯4496號) | 敦煌寶藏<br>冊41 收錄<br>(斯5319號) | 敦煌寶藏<br>冊34 收錄<br>(斯4209號) | 敦煌寶藏<br>冊34 收錄<br>(斯4168號) | 敦煌寶藏<br>冊40 收錄<br>(斯5176號) | 敦煌寶藏<br>冊89 收錄<br>(北5131號) |
| 無関       | [无导]                       | [无礙]                       | [无礙]                       | [无礙]                       | [无礙]                       | [无导]                       | [無関]                       |
| 01-08/06 | *                          | *                          | *                          | *                          | *                          | *                          | *                          |
| 障関       | 鄣导                         | 鄣礙                         | 障礙                         | [障礙]                       | [障礙]                       | [障导]                       | [障関]                       |
| 02-8/13  | 285a14/12                  | 344a04/12                  | 621b02/12                  | *                          | *                          | 474a09/12                  | *                          |
| 無関       | 无导                         | 无礙                         | 无礙                         | [无礙]                       | [无礙]                       | [无导]                       | [無関]                       |
| 02-18/03 | 285b05/03                  | 344a15/03                  | 621b12/03                  | *                          | *                          | 474a19/03                  | *                          |
| 関        | 导                          | 礙                          | 礙                          | 礙                          | 礙                          | 导                          | [関]                        |
| 03-25/08 | 286b03/08                  | 345a10/08                  | 622a21/08                  | 474a09/08                  | 289a18/08                  | 475a09/08                  | *                          |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無’자의 경우에 있어서 사본에서는 모두 ‘无’자로 쓰고 있고 있으며, ‘闕’자의 경우에는 ‘導·礙’자가 혼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障’자의 경우는 좌변의 ‘β’이 사본에서는 우변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표 6> 「妙法蓮華經」 板本類와의 異體字對比表

| 佛甲寺本 本文位置 | 敦煌寫本 | 遼本 | 西夏本 | 中華大藏經 | 再雕本 | 成達生書寫本 | 刊經都監本 |
|-----------|------|----|-----|-------|-----|--------|-------|
| 張1行8字6    | 無闕   | 无礙 | 無礙  | 無導    | 无礙  | 無礙     | 無礙    |
| 02-08-13  | 障闕   | 障礙 | 障礙  | 障導    | 障礙  | 障礙     | 障礙    |
| 02-18-03  | 無闕   | 无礙 | 無礙  | 無導    | 無礙  | 無礙     | 無礙    |
| 03-25-08  | 闕    | 礙  | 礙   | 導     | 礙   | 礙      | 礙     |

그런데 15세기 이전의 판본류에 있어서는 ‘無’자의 경우 사본과는 달리 모두 정자로 쓰여 지고 있으나, 다만 유일하게 再雕藏에서만 사본의 이체자인 ‘无’로 그대로 쓰여 있다. 그러나 ‘闕’자의 경우는 「중화대장경」에 수록된 범화경에서 유일하게 사본에 쓰인 ‘導’자로 쓰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판본류에서는 모두 ‘礙’자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불갑사본은 사경을 저본으로 판각한 목판본으로 보인다.

### 5.4.3 誤脫字의 校勘

誤脫字의 경우 사본과 판본 전체에서 6곳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래의 <표 7>과 <표 8>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한편 誤字의 경우는 ‘足’자 단 1곳(12-14/09)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사본과 판본에서 모두 ‘佛’자로 쓰여 있어 불갑사본 書寫者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서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수당사본이 모두 ‘佛’자로 쓰여 있고, 불갑사본에서만 유독 ‘足’자로 나타난 이후 그 후의 판본에서

도 또한 사본과 같이 모두 ‘佛’자로 쓰여 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皆’자의 경우는 사본의 경우 671년 사본을 제외하고 모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 隋·唐寫本과의 誤脫字 對比表

|          | 隋寫本<br>大業4(608)            | 唐寫本<br>總章1(668)            | 唐寫本<br>咸亨2(671)            | 唐寫本<br>咸亨3(672)            | 唐寫本<br>上元3(676)            | 唐寫本<br>長壽2(693)            | 唐寫本<br>開元9(721)            |
|----------|----------------------------|----------------------------|----------------------------|----------------------------|----------------------------|----------------------------|----------------------------|
| 佛甲寺本     | 敦煌寶藏<br>冊19 收錄<br>(斯2419號) | 敦煌寶藏<br>冊36 收錄<br>(斯4496號) | 敦煌寶藏<br>冊41 收錄<br>(斯5319號) | 敦煌寶藏<br>冊34 收錄<br>(斯4209號) | 敦煌寶藏<br>冊34 收錄<br>(斯4168號) | 敦煌寶藏<br>冊40 收錄<br>(斯5176號) | 敦煌寶藏<br>冊89 收錄<br>(北5131號) |
| 皆        | .                          | .                          | 皆                          | .                          | .                          | .                          | [皆]                        |
| 08-16/03 | 290a08/03                  | 348a13/03                  | 625a04/03                  | 476b12/03                  | 292a03/03                  | 478a08/04                  | *                          |
| 足        | [佛]                        | 佛                          | 佛                          | 佛                          | 佛                          | 佛                          | 佛                          |
| 12-14/09 | *                          | 350b15/09                  | 627a16/09                  | 478b20/09                  | 294a16/09                  | 480b07/09                  | 113b11/09                  |
| .        | .                          | 尔                          | .                          | .                          | .                          | .                          | .                          |
| 12-18/10 | *                          | 350b19/10                  | 627a20/10                  | 478b24/10                  | 294a20/10                  | 480b11/10                  | 113b15/10                  |

<표 8> 「妙法蓮華經」 板本類와의 誤脫字 對比表

| 佛甲寺本 本文位置 | 敦煌寫經 | 遼本 | 西夏本 | 中華<br>大藏經 | 再雕本 | 成達生<br>書寫本 | 刊經都監本 |
|-----------|------|----|-----|-----------|-----|------------|-------|
| 02-18-10  | .    | 及  | .   | .         | .   | 及          | 及     |
| 08-14-07  | 供養   | 供養 | 供養  | 供養        | 供養  | 供養         | 供養    |
| 08-16-03  | 皆    | .  | .   | .         | 皆   | .          | .     |
| 12-14-09  | 足    | 佛  | 佛   | 佛         | 佛   | 佛          | 佛     |
| 13-11-09  | 北    | .  | 北   | 北         | 北   | 北          | 北     |

그밖에 주목되는 脫字의 경우로는 張8의 14행의 7~8번째 글자인 ‘供養’ 2자인데, 이 2자는 7종의 寫本에는 모두 빠져 있는데 반하여, 大藏經을 비롯해서 遼本, 西夏本, 高麗本 등의 모든 木板本에는 들어 있어 어느 판본에서 처음으로 교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선후관계가 자못 궁금치 않을 수 없다. 속단키는 어려우나, 위의 ‘足’자의 경우와 같이 불갑사본 범화경에서 처음으로 校正이 이루어진 이후로 여타의 板本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한다.

### 5.4.4 通用字의 比較

그 외에 通用(類意)字로 판단되는 ‘是·此·時’, ‘花·華’, ‘谿·險’자 등과 비교 대상본 사이에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는 隋·唐寫經類 및 15세기 이전의 板本類에 나타난 通用字 또는 類意字를 대비한 결과이다.

<표 9> 隋·唐寫本과의 通用字 對比表

|          | 隋寫本<br>大業4(608)            | 唐寫本<br>總章1(668)            | 唐寫本<br>咸亨2(671)            | 唐寫本<br>咸亨3(672)            | 唐寫本<br>上元3(676)            | 唐寫本<br>長壽2(693)            | 唐寫本<br>開元9(721)            |
|----------|----------------------------|----------------------------|----------------------------|----------------------------|----------------------------|----------------------------|----------------------------|
| 佛甲寺本     | 敦煌寶藏<br>冊19 收錄<br>(斯2419號) | 敦煌寶藏<br>冊36 收錄<br>(斯4496號) | 敦煌寶藏<br>冊41 收錄<br>(斯5319號) | 敦煌寶藏<br>冊34 收錄<br>(斯4209號) | 敦煌寶藏<br>冊34 收錄<br>(斯4168號) | 敦煌寶藏<br>冊40 收錄<br>(斯5176號) | 敦煌寶藏<br>冊89 收錄<br>(北5131號) |
| 谿        | 嶮                          | 險                          | 險                          | 險                          | 險                          | 嶮                          | [險]                        |
| 03-08/03 | 286a03/03                  | 344b11/03                  | 622a04/03                  | 473b16/03                  | 289a01/03                  | 474b12/03                  | *                          |
| 葡萄       | 蒲桃                         | 蒲桃                         | 蒲桃                         | 蒲桃                         | [蒲桃]                       | 蒲桃                         | [蒲桃]                       |
| 03-09/08 | 286a04/08                  | 344b12/08                  | 622a05/08                  | 473b17/08                  | *                          | 474b13/08                  | *                          |
| 于        | 于                          | 于                          | 于                          | 于                          | 于                          | 乎                          | [于]                        |
| 03-18/02 | 286a13/10                  | 345a02/10                  | 622a14/02                  | 474a02/02                  | 289a11/02                  | 475a01/10                  | *                          |
| 時        | [而]                        | 而                          | 而                          | 而                          | 而                          | 而                          | 而                          |
| 12-04/16 | *                          | 350b05/16                  | 627a06/16                  | 478b10/16                  | 294a06/16                  | 480a17/16                  | 113b01/16                  |
| 時        | [而]                        | 而                          | 而                          | 而                          | 而                          | 而                          | 而                          |
| 13-05/07 | *                          | 351a11/08                  | 627b10/08                  | 479a14/08                  | 294b11/08                  | 481a02/08                  | 114a06/08                  |
| 是        | [是]                        | 是                          | 此                          | 此                          | 此                          | 是                          | 是                          |
| 14-03/04 | *                          | 351b16/04                  | 628a12/04                  | 479b13/04                  | 295a13/04                  | 481b05/04                  | 114b09/04                  |
| 花        | [華]                        | 華                          | 華                          | 華                          | 華                          | 華                          | 華                          |
| 14-19/01 | *                          | 352a11/02                  | 628b06/01                  | 480a04/01                  | 295b07/01                  | 482a01/01                  | 115a04/01                  |
| 鉢羅       | [鉢華]                       | 鉢華                         | 波羅                         | 波羅                         | 波羅                         | 鉢華                         | 波羅                         |
| 14-24/05 | *                          | 352a16/04                  | 628b11/04                  | 480a09/04                  | 295b12/04                  | 482a06/04                  | 115a09/04                  |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谿’자의 경우 사본에는 ‘險·嶮’자로 쓰여져 있으나, 이와는 달리 판본에는 모두 ‘險’자로 쓰여져 있다. 그런데 ‘葡萄’의 ‘葡’자는 사본에 있어서 모두 ‘桃’자로 쓰여져 있으나, 판본에는 사본과는 달리 모두 ‘萄’자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時’자의 경우 두 곳에서 사본에는 모두 ‘而’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아래의 판본에서는 모두 ‘時’로 교정되어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라는 지시대명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花’자의 경우는 사본에는 모두 ‘華’자로 쓰고 있으나, 아래의 판본에서는 모두 ‘花’자로 쓰여져 있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다.<sup>47)</sup>

<표 10> 「妙法蓮華經」板本類와의 通用字對比表

| 佛甲寺本 本文位置 | 敦煌寫本 | 遼本   | 西夏本 | 中華大藏經 | 再雕本 | 成達生書寫本 | 刊經都監本 |
|-----------|------|------|-----|-------|-----|--------|-------|
| 03-08-03  | 谿    | 險    | 險   | 險     | 險   | 險      | 險     |
| 03-09-08  | 蒲萄   | 蒲桃   | 蒲桃  | 蒲萄    | 蒲萄  | 蒲萄     | 蒲萄    |
| 03-18-02  | 于    | 于    | 於   | 于     | 于   | 于      | 于     |
| 12-04-16  | 時    | 而    | 時   | 時     | 時   | 時      | 時     |
| 12-18-09  | 處    | 處    | 受   | 處     | 受   | 受      | 處     |
| 13-05-07  | 時    | 而    | 時   | 時     | 時   | 時      | 時     |
| 14-03-04  | 是    | 是(此) | 此   | 此     | 此   | 此      | 此     |
| 14-03-20  | 益    | 長    | 益   | 益     | 益   | 益      | 益     |
| 14-08-02  | 而    | 而    | 時   | 而     | 時   | 時      | 而     |
| 14-23-15  | 覩    | 覩    | 覩   | 覩     | 見   | 見      | 見     |
| 14-24-05  | 鉢羅   | 波羅   | 鉢華  | 鉢羅    | 鉢羅  | 鉢花     | 鉢華    |

이상에서 불갑사 복장본 「法華經」의 形態的 특징인 卷首題의 形式과 卷·張

47) ‘華·花’자의 경우는 약간의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華’자가 則天武后 말년에 번역된 불경이나 寫本의 경우에서는 대체로 ‘花’자로 避諱代字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본래 ‘花’자는 측천무후 祖父의 이름자인 ‘華’자를 다른 글자로 피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內藤乾吉, <大方廣佛華嚴經 解題>, 『書道全集』(東京: 平凡社, 1932) 冊26, 188.;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東京: 翰林書房, 1995), 290-291. 參考]. 예컨대, 華嚴經의 ‘華’를 ‘花’자로 피휘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755년에 寫成된 우리나라의 『新羅白紙墨書華嚴寫經』의 경우 저본으로 쓰인 사경이 측천무후연간에 사성된 사본임을 증명하듯 대부분의 ‘華’자가 ‘花’자로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사경에는 측천무후연간에 사용된 武周制字가 상당수 보이고 있음에서도 입증된다 하겠다 [박상국, 影印『新羅白紙墨書 大方廣佛花嚴經』解題 (대전: 문화재청, 2000. 12), 31-37 參考]. 따라서 불갑사 범화경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花’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피휘 사실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키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避諱문제에서 다루지 않고 字體문제에서 취급했다.

次表記 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그 간행의 하한시기를 宋板大藏經의 開板 이전(970년대)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避諱와 字體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 避諱는 유일하게 고려 태조 왕건의 이름자인 ‘建’자 한 곳에서 兼避諱字가 나타나고 있으며, 字體의 특징은 고려 태조 재위 시에 추진 건립된 여러 고승 塔碑의 書體를 방불케 하고 있어 고려 태조 재위연간에 쓰여 진 서체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의 형태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갑사 복장본 「법화경」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 이후의 재위기간 동안에 板刻 印出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8)</sup>

## 6. 結 論

이상에서 佛甲寺 冥府殿 十王像에서 발견된 卷子本 「妙法蓮華經」 卷3의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필자가 1998년 복장 수습시에 명부전 중앙의 본상인 지장보살상의 복장물은 이미 도굴된 상태여서 수습할 내용물은 없었고, 그 밖의 존상에서는 여주 鷲巖寺 板 「直指」 등 高麗本 5종 5책을 비롯하여 함께 119종 135책이 발견된 바 있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본인 「妙法蓮華經」 卷3의 殘卷도 이곳의 여러 시왕상에

48) 고려 태조 왕건은 후백제와의 최후의 전투가 지금의 논산시 連山에서 있었다. 이 전투는 후백제의 신검이 투항함으로써 승리하여 비로소 삼국을 통합케 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태조는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최후의 격전지 인근에 있던 黃山佛寺의 자리에 4년 동안에 걸쳐 대규모의 사찰을 조성하였는데, 바로 開泰寺이다. 이에 태조는 친히 願文지어 창건법회에서 사찰 건립의 緣起를 밝혔으며, 또한 사찰 후면에 펼쳐 있는 黃山을 天護山으로 改名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18, <連山縣> ‘佛宇’條 참조). 지금의 개태사는 본래의 터에서 남쪽으로 옮겨서 1934년에 重建되었는데, 현재 여기에 남아 있는 유물 중에 <石造三尊佛立像>과 <鐵鑊> 등의 규모로 보아, 창건 당시의 가람의 전체적 규모를 짐작케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현존 유물의 규모로 보아, 개태사는 혹시 불갑사에서 발견된 복장본 법화경의 간행 동기나 간행사찰로서 의미를 지닐만한 사찰로서 주목될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후로 이 개태사에는 고려시대 초조 및 재조대장경의 雕造事業을 직접 주관했던 대각국사 義天과 守其법사 등이 한동안 머물렀던 사찰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분산 복잡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2) 그리하여 이 책의 간행연대를 추정하기 위해서 卷首題의 기재형식을 隋·唐代寫經 및 新羅寫經과 비교해 본 결과, 經名 + 品名 + 卷次의 서명 기재형식이 완전히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불갑사 복잡본 『법화경』의 서명형식은 寫本시대에서 板本시대로 넘어 가는 초기단계에서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그리고 11세기 이전에 간행된 목판본과 비교한 결과, 모두 ‘譯者表示’가 나타나 있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소개된 진본 『화엄경』 권20과 권33의 서명 기재형식과는 완전히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불갑사 복잡본 『법화경』(권3)은 늦어도 10세기말 이전에 간행된 판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宋板大藏經의 출현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13세기 이전에 간행된 5종의 목판본 『법화경』과 비교해 본 결과, 卷首題의 기재형식이 經名과 品名이 완전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또한 ‘譯者表示’가 반드시 기재되는 3행 형식으로 전환되었음을 고찰했다. 이러한 특징은 불갑사본 『법화경』의 서명기재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이 책은 송판대장경의 간행 이전에 나타난 서명 기재형식으로 보인다.

5) 다음으로 卷·張次 표기형식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권·장수 표기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은 宋板大藏經에 보이는 板式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송판대장경의 개판 이전 시기에는 書名이나 譯本의 식별 의미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매우 단순한 卷次 및 張次 개념만 들어 있는 형식으로부터, 그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복합적 식별요소들이 가미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불갑사 복잡본 『법화경』의 경우 매우 단순하게 숫자로만 卷·張次가 표시되어 있어 송판대장경 이전의 표기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간행도 그 이전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6) 한편 불갑사 복잡본 『법화경』에서는 고려 태조 왕건의 이름자인 ‘建’자의

避諱 사례가 발견된 바, 이는 이 책이 고려 태조 왕건 재위연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고려 3대왕 定宗의 이름자인 ‘堯’자의 兼避諱字가 적어도 10회 이상 사용되고 있으나, 어느 곳에서도 전혀 避諱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따라서 불갑사 복장본 법화경이 고려 태조의 재위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려 태조 연간에 불경의 간행사실이 기록된 문헌사료의 내용과도 부합된다.

7) 불갑사본 「法華經」의 字體를 살펴 본 결과, 태조 왕건 재위연간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고승의 塔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歐體를 근간으로 굳건하고 예리하게 쓰여진 서체를 방불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無垢淨光經」과 「寶篋印陁羅尼經」에서 보이는 寫經體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寫經體字로는 ‘能·願·隱·勝·足·定·正·因’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에 正과 因자는 일부 楷書字가 보이고 있어 과도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경체자는 開寶藏과 初雕本 이후의 刊本에서는 正字體로 정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 이전의 신라 및 고려 초기 간본을 식별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주목된다.

이상과 같이 불갑사 복장본 「妙法蓮華經」 卷3의 형태적 특징인 卷首題와 卷·張次表記 형식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그 간행의 하한시기를 宋板大藏經의 開板 이전(970년대)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避諱와 字體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避諱는 유일하게 고려 태조 왕건의 이름(혹 姓)자인 ‘建’자 한 곳에서만 발견된 점과, 字體의 특징은 고려 태조 재위 무렵에 건립된 塔碑의 書體를 방불케 하고 있어, 고려 태조 재위연간에 유행했던 서체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여러 형태적 특징, 불경의 간행사실과 정치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갑사 복장본 「법화경」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 이후의 재위기간 동안에 板刻 印出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참고문헌>

### 1. 資料集

- 「高麗大藏經」. 서울: 동국대학교, 1957~1976.
- 敦煌研究院. 「敦煌: 紀念敦煌藏經洞發現一百周年」. 北京: 朝華出版社, 2000.
- 「敦煌寶藏」. 臺北: 商務印書館, 1981~ .
- 「動產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 1984~1997년 指定篇」. 서울: 문화재관리국.
- 「無垢淨光大陀羅尼經」. 대전: 문화재청, 1999.
- 山西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應縣木塔遼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1991.
- 「書道全集」. 東京: 平凡社, 1965.
- 「西域美術」(3冊). 東京: 講談社, 1982.
-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대전: 문화재청, 2000.
- 俄羅斯科學院 東方研究所 聖彼得堡分所. 「俄藏黑水城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 「靈光郡母岳山佛甲寺古蹟及位施沓錄」. 영광: 佛甲寺, 1742寫.
- 「靈光 母岳山 佛甲寺」. 서울: 동국대 박물관, 2001.
- 「英藏敦煌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朝鮮寺刹史料」. 京城: 朝鮮總督府, 1911.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京城: 朝鮮總督府, 1933.
- 「中華大藏經」. 臺北: 中華書局, 1984~ .
- 「한국서예사특별전논문집」. 서울: 예술의 전당, 1998.

### 2. 單行本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藤枝晃. 「高昌殘影」. 京都: 法藏館, 1978.
- 藤枝晃. 「文字の文化史」. 東京: 岩波書店, 1971.
- 潘吉星. 「造紙與印刷」. 北京: 科學出版社, 1998.

- 潘吉星. 「中國科學技術史: 造紙與印刷」. 北京: 科學出版社, 1998.
- 史金波. 「中國活字印刷術的發明和早期傳播」.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 水野弘元 著, 李美玲 譯. 「경전의 성립과 전개」. 서울: 시공사, 1996.
- 宿白. 「唐宋時期的雕板印刷」. 北京: 文物出版社, 1999.
- 宋日基. 「靈光佛甲寺의 佛教文獻」. 서울: 태학사, 2005.
- 沈喆俊. 「無垢淨經」傳入與否考」. 서울: 三希出版社, 2002.
- 李承休. 「動安居士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3.
-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 長澤規矩也. 「和漢書の印刷とその歴史」. 東京: 吉川弘文館, 1952.
- 中村不折. 「新疆と甘肅の探險」. 東京: 雄山閣, 1934.
- 千惠鳳.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調查研究」. 서울: 成保文化財團, 1988.
- 錢存訓. 「中國科學技術史: 紙和印刷」. 北京: 科學出版社, 1990.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T.F. 카터 著, 강순애, 송일기 공역. 「인쇄문화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 3. 論文

- 高翊晉. “法華經戒環解의 盛行來歷考.” 「佛教學報」 12輯.
- 南權熙. “興德寺字로 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覆刻本에 관한 研究.” 「文獻情報學報」(진남대 문헌정보학과) 제4집(1990).
- 南豊鉉. “新羅 華嚴經寫經造成記에 대한 語學的 考察.” 「東洋學」 21(1991).
- 文明大.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 「韓國學報」 제14집(1979).
- 박철상. “고려 숙종의 장서인.” 「문헌과 해석」 제15집(2001년 여름).
- 宋日基. “誠庵本 晉本 華嚴經(卷20)의 經題에 관한 研究.” 「불교문화연구」 제3집(2004. 6).
- 宋日基. “釋迦塔本 無垢淨光經 經板의 復原 檢討.” 「書誌學研究」 제42집(2009. 6).
- 宋日基. “古代 동아시아 佛經의 ‘卷首題 形式’ 考察.” 東亞細亞出版文化研究 國際學術會議(日本學術振興會). 2010. 3.

沈喆俊. “王建先祖名‘建’에 대하여.” 『淑大史論』 第4輯(1969).

李基白. “新羅 景德王代の 華嚴經 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제83집(1979).

이희관.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跋文의 基礎的 檢討.” 『문헌과 해석』 제12호(2000).

정재영.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研究.” 『문헌과 해석』 제12호(2000년 가을).

鄭在永.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研究』 제7집(2001).

千惠鳳. “고려초기 간행의 寶篋印陀羅尼經.” 『圖書館學報』(중앙대 도서관학과) 第2輯(1973).

崔範勳. “新羅 華嚴經寫經造成記 解讀.” 『경기어문학』 2(1981).

黃壽永. “新羅 景德王代の 大方廣佛華嚴經 寫經.” 『歷史學報』 제83집(1979).